

WEBVTT

00:00:10.731 --> 00:00:11.944

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

00:00:12.044 --> 00:00:13.406

김태동 선생입니다.

00:00:13.506 --> 00:00:16.223

여러분, 실전 문제 마지막
문법 풀어볼게요.

00:00:16.323 --> 00:00:19.224

문법 세트가 3개가
이렇게 모여 있어요.

00:00:19.324 --> 00:00:21.357

그래서 총 15문제입니다.

00:00:21.457 --> 00:00:24.207

첫 번째 실전 1번
문제부터 볼 텐데,

00:00:24.307 --> 00:00:28.465

최근의 경향이 문법도 역시
마찬가지로 비문학처럼 글로 이렇게

00:00:28.565 --> 00:00:32.124

쪽 설명이 되고 그다음에
이제 나오는 거거든요.

00:00:32.224 --> 00:00:34.738

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어렵게
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

00:00:34.838 --> 00:00:37.452

비문학처럼 우리가 독해를
해야 되는 거라서요.

00:00:37.552 --> 00:00:38.611

1번 문제 볼까요?

00:00:38.711 --> 00:00:41.107

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
㉠~㉦를 이해한 내용으로

00:00:41.207 --> 00:00:43.120

적절하지 않은 것을
찾으라고 얘기했고.

00:00:43.220 --> 00:00:46.715

2번은 ㉧과 성격이 유사한 걸
한번 찾아보라고 얘기했는데.

00:00:46.815 --> 00:00:48.973

합성어, 파생어에 대한 문제입니다.

00:00:49.073 --> 00:00:51.432

내용으로 한번 가볼게요.

00:00:51.532 --> 00:00:53.838
단어는 단일어와 복합어로 나뉩니다.

00:00:53.938 --> 00:00:57.852
단일어는 이제 어근 혼자 있을 때
그걸 단일어라고 얘기하고요.

00:00:57.952 --> 00:01:01.091
복합어는 다시 합성어와
파생어로 나뉘죠.

00:01:01.191 --> 00:01:04.114
파생어와 합성어로 나뉜다,
합성어는 둘 이상의 실질 형태소가

00:01:04.214 --> 00:01:07.865
결합해서 하나가 된 거라고 했을
때 실질 형태소라고 하는 게

00:01:07.965 --> 00:01:10.663
바로 뭐냐면 어근을
뜻하는 말입니다.

00:01:10.763 --> 00:01:12.608
합성어는 어근의 논리적.

00:01:12.708 --> 00:01:15.193
이게 실질 형태소가 바로
어근하고 똑같은 거예요.

00:01:15.293 --> 00:01:18.679
논리적 관계에 따라 크게
대등 합성어, 종속 합성어,

00:01:18.779 --> 00:01:20.523
융합 합성어로 나뉘는데요.

00:01:20.623 --> 00:01:23.232
대등 합성어는 어근과 어근이
대등한 관계로 결합해서

00:01:23.332 --> 00:01:24.989
본래의 뜻을 유지하는 합성어인데.

00:01:25.089 --> 00:01:27.545
오가다, 그러니까 오다와
가다 이런 뜻이겠죠.

00:01:27.645 --> 00:01:31.019
앞뒤, 이런 것들이 바로
뭐냐면 대등 합성어입니다.

00:01:31.119 --> 00:01:34.259
지금 설명된 게 바로 첫 번째
합성어의 종류를 대등 합성어,

00:01:34.359 --> 00:01:39.312
그다음에 종속 합성어, 융합 합성어
세 가지로 나눈 거예요, 아시겠죠?

00:01:39.412 --> 00:01:44.022

대등 합성어는 각각의 어근이
본래의 뜻을 유지하며 대등하게

00:01:44.122 --> 00:01:47.493

결합되기 때문에 앞말과
뒷말이 용언일 경우에는,

00:01:47.593 --> 00:01:53.829

동사나 명사 용언일 경우에는 그
사이에 고, 며와 같은 조사를,

00:01:53.929 --> 00:01:59.092

그다음에 앞말과 뒷말이 체언일
경우에는 그 사이에 과, 와와 같은

00:01:59.192 --> 00:02:03.736

조사를 붙여도 자연스럽게 연결된다,
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.

00:02:03.836 --> 00:02:06.302

제 생각에는 글이 좀
잘못된 것 같습니다.

00:02:06.402 --> 00:02:09.953

여기 보면 그 사이에 고와
며 같은 조사가 아니고요.

00:02:10.053 --> 00:02:12.040

이걸 어미라고 해야
되지 않을까 싶어요.

00:02:12.140 --> 00:02:15.088

그러니까 대등하게 용언이 결합했을
때, 용언과 용언이 결합할 때

00:02:15.188 --> 00:02:18.948

용언에 어미가 결합되는
게 자연스럽겠죠.

00:02:19.048 --> 00:02:23.161

그 사이에 고, 며와 같은 조사가
아니고 어미라고 잘못 쓴 것 같아요.

00:02:23.261 --> 00:02:25.824

앞말과 뒷말이 체언일 경우에는
그 사이에 과와 와 같은

00:02:25.924 --> 00:02:28.288

조사를 붙여도 자연스럽게 연결된다.

00:02:28.388 --> 00:02:32.823

또 종속 합성어라고 하는 것은
뭐냐면 의미상 한쪽 어근이

00:02:32.923 --> 00:02:35.961

다른 어근에 매여서 결합된
합성어인데, 종속된 거거든요.

00:02:36.061 --> 00:02:38.987

쉽게 말하면 수식을 한다,
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.

00:02:39.087 --> 00:02:42.428

즉, 어근이 다른 어근을
수식하는 합성어를 말하죠.

00:02:42.528 --> 00:02:46.333

우짚다라고 하면 울부짚다, 산길.

00:02:46.433 --> 00:02:49.722

울다와 짚다, 산길, 산에
난 길 이런 뜻이고요.

00:02:49.822 --> 00:02:53.881

날아가다라고 하면 가긴 가는데
어떻게 가냐면 날아서 가다

00:02:53.981 --> 00:02:57.727

이런 뜻을 나타내고 있는 거니까
종속 합성어에 해당되는 겁니다.

00:02:57.827 --> 00:03:00.845

대등 합성어, 종속
합성어 이해되지죠?

00:03:00.945 --> 00:03:04.145

그리고 둘 이상의 낱말이 서로
어울려 그 각각의 원래의 뜻에서

00:03:04.245 --> 00:03:06.901

벗어나서 한 덩어리의 새 뜻을
나타내는 합성어가 있는데.

00:03:07.001 --> 00:03:09.214

예컨대 춘추, 손아래.

00:03:09.314 --> 00:03:12.539

원래의 의미를 벗어나서 각각의
어른의 나이를 높여서 부를 때

00:03:12.639 --> 00:03:14.811

춘추라고 하죠, 원래는
봄, 가을인데요.

00:03:14.911 --> 00:03:17.635

나이나 향렬 따위가 자기보다
아래이거나 낮은 관계를

00:03:17.735 --> 00:03:18.797

손아래라고 얘기합니다.

00:03:18.897 --> 00:03:21.651

또는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는
새로운 의미를 지니게 되죠.

00:03:21.751 --> 00:03:24.890

이러한 합성어를 뭐라고 하나면
융합 합성어라고 합니다.

00:03:24.990 --> 00:03:27.948

그밖에 집집, 구불구불과
같이 하나의 어근이 겹쳐서

00:03:28.048 --> 00:03:31.524

이루어진 합성어인 반복
합성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.

00:03:31.624 --> 00:03:34.971

그러면 합성어를 지금
세 가지로 우선 먼저 구분했는데

00:03:35.071 --> 00:03:40.171

대등 합성어, 그다음에 종속 합성어,
융합 합성어에 대해서 설명했구요.

00:03:40.271 --> 00:03:43.757

그다음에 마지막에 반복
합성어라고 하는 것도

00:03:43.857 --> 00:03:46.314

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, 아시겠죠?

00:03:46.414 --> 00:03:49.666

그다음 보시면 또 합성어는
배열 관계에 의해서

00:03:49.766 --> 00:03:52.416

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
합성어로 나뉩니다.

00:03:52.516 --> 00:03:54.148

이게 제일 어렵습니다, 여러분.

00:03:54.248 --> 00:03:57.069

통사적 합성어는 우리말
문장의 일반적인 어순이나

00:03:57.169 --> 00:04:00.509

단어 배열법과 일치하는
합성어니까 일반적인 어순이

00:04:00.609 --> 00:04:04.222

뭔지 알아야 되고, 단어 배열법이
어떤 건지 아셔야 된다는 얘기에요.

00:04:04.322 --> 00:04:07.015

우리말의 일반적인 단어
배열 방식은, 보세요.

00:04:07.115 --> 00:04:12.526

명사와 명사 결합했을 때, 그다음에
주어, 서술어 결합하는 거고요.

00:04:12.626 --> 00:04:16.587

목적어+서술어, 관형어+체언,
부사어+서술어 등으로

00:04:16.687 --> 00:04:21.137

이렇게 나오는 게 바로
일반적인 통사적 합성어예요.

00:04:21.237 --> 00:04:23.899

일반적인 단어의 배열법하고

똑같은 거죠.

00:04:23.999 --> 00:04:26.631

논발, 명사, 명사 배열되죠?

00:04:26.731 --> 00:04:29.984

힘들다, 힘이 들다 할 때
가운데 조사가 생략된 겁니다.

00:04:30.084 --> 00:04:34.887

장가들다, 큰아버지, 잘하다 등이 이러한
배열 순서를 따른 합성어들이죠.

00:04:34.987 --> 00:04:38.247

그러니까 합성어 중에서는
통사적 합성어라고 해서

00:04:38.347 --> 00:04:42.640

우리 국어 문장의 단어 배열법하고
똑같고, 문장 어순하고 똑같은 때

00:04:42.740 --> 00:04:47.796

그걸 바로 합성어 중에서도
통사적 합성어라고 합니다.

00:04:47.896 --> 00:04:49.148

워낙 많아서요.

00:04:49.248 --> 00:04:51.681

이와 달리 우리말의 단어
배열법에서 벗어난 합성어를

00:04:51.781 --> 00:04:53.468

비통사적 합성어라고 하는데요.

00:04:53.568 --> 00:04:57.005

비통사적 합성어는 예를 들어서
보슬비를 한번 살펴보자.

00:04:57.105 --> 00:05:01.481

보슬이라고 하는 게, 이 낱말은 부사
보슬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.

00:05:01.581 --> 00:05:04.574

보슬에 명사 비가 결합된 건데요.

00:05:04.674 --> 00:05:08.276

부사는 용언을 수식한다는 우리말의
부사 수식 구성에서 어긋나

00:05:08.376 --> 00:05:11.504

부사인 보슬이 체인인 비를
수식하고 있는 거죠.

00:05:11.604 --> 00:05:13.921

그러니까 비통사적
합성어라고 합니다.

00:05:14.021 --> 00:05:17.436

다른 예로는 늦더위라고
하는 것이 바로 있는데요.

00:05:17.536 --> 00:05:23.175

늦더위는 형용사 어간 늦이
관형사형 어미가 없이

00:05:23.275 --> 00:05:25.431

명사 앞에 놓였으므로.

00:05:25.531 --> 00:05:27.698

즉, 말하면 어미가
생략되어 있어요.

00:05:27.798 --> 00:05:29.803

우리 국어는 어미가
생략되면 안 되거든요.

00:05:29.903 --> 00:05:32.570

그런데 어미가 없이
결합되어 있습니다.

00:05:32.670 --> 00:05:36.245

그래서 우리말의 단어 배열법에서
벗어난 비통사적 합성어죠.

00:05:36.345 --> 00:05:40.287

어미가 생략되어 있으면 비통사적
합성어가 되는 거예요.

00:05:40.387 --> 00:05:41.927

이밖에도 덮밥 보세요.

00:05:42.027 --> 00:05:43.305

덮은 밥이죠.

00:05:43.405 --> 00:05:45.288

검붉다, 검고 붉다잖아요.

00:05:45.388 --> 00:05:48.312

고라고 하는 어미가 생략되어 있고.

00:05:48.412 --> 00:05:50.866

여닫다, 열고 닫다에서
고가 생략되어 있죠.

00:05:50.966 --> 00:05:53.733

등과 같이 일반적인 단어
배열법에서 벗어난

00:05:53.833 --> 00:05:55.514

합성어들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.

00:05:55.614 --> 00:06:00.267

다시 두 가지로 나누면 통사적
합성어라고 하는 게 있고요.

00:06:00.367 --> 00:06:06.085

그다음에 비통사적 합성어 이렇게 나눌
수가 있다는 거예요, 아시겠죠?

00:06:06.185 --> 00:06:10.552

그러면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

㉠~㉡를 이해한 내용으로

00:06:10.652 --> 00:06:13.766

적절하지 않은 것을
골라보라고 얘기했습니다.

00:06:13.866 --> 00:06:15.837

1번 선택지를 볼게요.

00:06:15.937 --> 00:06:18.324

㉠에서 팔다리는, 팔다리를 볼까요?

00:06:18.424 --> 00:06:22.642

팔다리는 어근 사이에
과와 같은 조사를 붙여도

00:06:22.742 --> 00:06:24.088

의미가 자연스럽게 연결된다.

00:06:24.188 --> 00:06:25.051

붙여 보세요.

00:06:25.151 --> 00:06:26.927

팔과 다리가 쭈신다, 되죠?

00:06:27.027 --> 00:06:28.909

1번 선택지 적절하겠네요.

00:06:29.009 --> 00:06:30.411

2번 선택지 볼까요?

00:06:30.511 --> 00:06:33.613

나뭇가지에서 나무와 가지가
종속적으로 결합한 합성어다, 왜?

00:06:33.713 --> 00:06:36.809

가지긴 가지인데 나무의
가지일 수도 있고요.

00:06:36.909 --> 00:06:38.686

꽃의 가지일 수도 있고,
이런 거잖아요.

00:06:38.786 --> 00:06:43.004

그러니까 종속 합성어에
해당된다는 게 적절하겠죠.

00:06:43.104 --> 00:06:47.235

㉢에서 입방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
입방아는, ㉢를 볼까요?

00:06:47.335 --> 00:06:49.479

앞에 ㉢를 볼까요?

00:06:49.579 --> 00:06:52.189

그 사건은 사람들의 입방아에
오르내렸다고 하면

00:06:52.289 --> 00:06:53.786

입과 방아가 결합했죠.

00:06:53.886 --> 00:06:55.605
새로운 의미를 지닌 융합 합성어죠.

00:06:55.705 --> 00:06:59.005
입방이라고 하면 사람들의
입방아에 오르내리다라고 하면

00:06:59.105 --> 00:07:01.673
사람들이 뒤에서 뒷담화하고
이런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.

00:07:01.773 --> 00:07:03.359
그러니까 융합 합성어가 되는 거죠.

00:07:03.459 --> 00:07:04.576
적절합니다.

00:07:04.676 --> 00:07:08.747
㉔에서 돌아가다는 돌다와 가다가
결합하여 새 뜻을 나타냈다.

00:07:08.847 --> 00:07:10.005
㉔를 볼까요?

00:07:10.105 --> 00:07:13.042
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고
하면 돌다, 가다는

00:07:13.142 --> 00:07:15.327
원래 뒤돌아서가다
이런 의미일 텐데,

00:07:15.427 --> 00:07:17.136
돌아가다라고 하면 돌아가시다,

00:07:17.236 --> 00:07:20.599
죽음을 나타내고 있는 거니까
융합 합성어가 될 수 있겠죠.

00:07:20.699 --> 00:07:24.241
㉔에서 돌아가다는 돌다와
가다의 본래 의미를

00:07:24.341 --> 00:07:25.413
유지하고 있는 합성어다.

00:07:25.513 --> 00:07:26.347
볼까요?

00:07:26.447 --> 00:07:29.028
모퉁이를 돌아가면, 이것도
역시 적절하겠네요.

00:07:29.128 --> 00:07:30.396
마지막 예문 볼까요?

00:07:30.496 --> 00:07:34.955
흔들지도 않은 밤나무에서 밤송이가
떨어졌다고 얘기했는데.

00:07:35.055 --> 00:07:40.007

첫 번째 보면 밤나무는 밤이 나무를
수식하는 관계로 종속 합성어지만,

00:07:40.107 --> 00:07:41.450
여기까지는 맞아요.

00:07:41.550 --> 00:07:44.948
나무이긴 나무인데 밤나무도 있고,
잣나무도 있고 이러잖아요.

00:07:45.048 --> 00:07:48.694
밤송이는 밤과 송이가 대등하게
결합한 대등 합성어다.

00:07:48.794 --> 00:07:49.882
이게 틀렸습니다.

00:07:49.982 --> 00:07:52.975
밤과 송이라고 하는 것도 송이도
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,

00:07:53.075 --> 00:07:56.382
그중에 밤의 열매를 나타낼
때 밤송이라고 하는 거니까

00:07:56.482 --> 00:07:59.166
이것도 역시 종속 합성어가 되겠죠.

00:07:59.266 --> 00:08:03.764
그러니까 5번이 정답이
되겠습니다, 아시겠죠?

00:08:03.864 --> 00:08:07.873
그다음에 밑줄 친 단어 중에서
㉠과 성격이 가장 유사한 걸

00:08:07.973 --> 00:08:10.842
찾으라 그랬는데, ㉠이
뭐냐면 보슬비예요.

00:08:10.942 --> 00:08:13.904
보슬비가 뭐였냐면
여러분, 부사였습니다.

00:08:14.004 --> 00:08:15.713
부사가 뭘 꾸며줬어요?

00:08:15.813 --> 00:08:17.461
명사를 꾸며줬죠.

00:08:17.561 --> 00:08:19.147
이건 문체가 좀
어렵습니다, 여러분.

00:08:19.247 --> 00:08:21.173
산들바람 이렇게 잘라 보면요.

00:08:21.273 --> 00:08:24.053
이 산들바람이라고 하는 게
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.

00:08:24.153 --> 00:08:25.922

산과 들에서 부는 바람.

00:08:26.022 --> 00:08:29.404

그러면 산과 들에서 부는 바람이니까
명사, 명사, 명사 아니냐

00:08:29.504 --> 00:08:30.940

이렇게 생각하는데요.

00:08:31.040 --> 00:08:33.070

산들이라고 하는 건
뭐냐면, 이거예요.

00:08:33.170 --> 00:08:35.524

산들산들 부는 바람이라고
하는 거예요.

00:08:35.624 --> 00:08:38.697

그러니까 산들이라고 하는 게
산들산들의 하나만 있는 거죠.

00:08:38.797 --> 00:08:39.943

그러니까 부사입니다.

00:08:40.043 --> 00:08:41.366

부사와 명사가 합쳐졌어요.

00:08:41.466 --> 00:08:44.975

정답은 1번이 정답이
되겠죠, 됐습니까?

00:08:45.075 --> 00:08:47.992

온종일이라고 하면 온종일,
온 세상 이런 것처럼

00:08:48.092 --> 00:08:49.807

관형사 명사라고 생각하면 되고요.

00:08:49.907 --> 00:08:53.911

손쉽게, 손이 쉽다 이런 거니까
명사하고 쉽다라고 하는 게

00:08:54.011 --> 00:08:55.172

형용사니까요.

00:08:55.272 --> 00:08:57.123

주어, 서술어 관계라고
생각하면 되겠죠.

00:08:57.223 --> 00:08:58.335

이거 좀 어렵습니다.

00:08:58.435 --> 00:09:02.921

젊은이라고 하면 젊다에 은이라고
하는 관형사형 어미가 붙은 거고요.

00:09:03.021 --> 00:09:05.611

이라고 하는 게 바로
뭐냐면 의존명사입니다.

00:09:05.711 --> 00:09:10.204

그다음에 힘썌, 힘을 쓰다라고
목적어와 서술어의 관계

00:09:10.304 --> 00:09:14.076

힘을 쓰다, 이렇게 되는 거니까 5번도
여기에 해당하는 예문은 아니겠죠.

00:09:14.176 --> 00:09:15.911

정답은 1번이 정답입니다.

00:09:16.011 --> 00:09:18.489

산들바람이라고 하는 게
산과 들이 아니라

00:09:18.589 --> 00:09:22.309

산들산들에서 나온 말이라고 하는
것을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.

00:09:22.409 --> 00:09:24.106

아시겠죠?

00:09:24.206 --> 00:09:27.007

다음은 이중 모음의 발음에
대한 수업 장면의 일부분이다.

00:09:27.107 --> 00:09:29.249

선생님의 안내에 따라서
㉠~㉡의 발음을 토대로

00:09:29.349 --> 00:09:31.178

이중 모음의 발음에
대해서 탐구한 결과로

00:09:31.278 --> 00:09:34.159

적절하지 않은 것을
찾으라고 얘기했는데.

00:09:34.259 --> 00:09:39.011

여러분, ㅏ, ㅑ, ㅓ, ㅕ, ㅗ,
내 이런 것들은 이중 모음이지만,

00:09:39.111 --> 00:09:42.934

예외적으로 단모음으로
발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

00:09:43.034 --> 00:09:46.344

즉, 다시 말하면 이중 모음으로
발음한다는 얘기는 뭐냐면

00:09:46.444 --> 00:09:50.092

야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야로
발음해야 된다는 얘기에요.

00:09:50.192 --> 00:09:53.292

이중 모음 발음 그대로 발음을
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.

00:09:53.392 --> 00:09:54.995

애도 마찬가지로.

00:09:55.095 --> 00:09:58.119

애도 마찬가지로 애 말고
다른 발음으로 발음을 하면

00:09:58.219 --> 00:09:59.401

안 된다는 뜻입니다.

00:09:59.501 --> 00:10:02.394

그게 바로 뭐냐면 이중
모음의 발음법이에요.

00:10:02.494 --> 00:10:06.880

그런데 예외적으로 단모음으로
발음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.

00:10:06.980 --> 00:10:12.242

예를 들어서 여기 밑에 보면
만지어라고 하면 지어가 줄여서

00:10:12.342 --> 00:10:13.789

저가 됐잖아요.

00:10:13.889 --> 00:10:16.919

그런데 발음할 때는 만져,
이렇게 어라고 해서

00:10:17.019 --> 00:10:20.681

어와 같은 단모음으로
발음해도 된다는 얘기에요.

00:10:20.781 --> 00:10:25.305

그다음 고치어도 고쳐가 돼서
고쳐가 되는 것도 된다는 거죠.

00:10:25.405 --> 00:10:30.941

차례할 때 이것도 차례, 이거는
뭐냐면 차례 같은 경우는

00:10:31.041 --> 00:10:33.691

레 이거밖에 안 되는 거죠,
이중 모음밖에 안 되는 거고요.

00:10:33.791 --> 00:10:37.131

예절 같은 경우도 이중
모음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.

00:10:37.231 --> 00:10:38.808

이게 뭘까요?

00:10:38.908 --> 00:10:42.035

그러면 하나하나 보면서, 밑에
선택지를 보면서 봐야겠습니다.

00:10:42.135 --> 00:10:46.683

1번, ㉠을 보니까 용언의 활용형에
나타나는 저, 처 등의 여는

00:10:46.783 --> 00:10:48.580

단모음으로 발음한다.

00:10:48.680 --> 00:10:49.666

다시 한번 볼까요?

00:10:49.766 --> 00:10:54.413

용언의 활용형에서라고 되어 있으니까
만지어가 지어가 쳐가 됐죠.

00:10:54.513 --> 00:10:55.944

용언이 활용되는 거잖아요.

00:10:56.044 --> 00:10:58.598

활용이라고 하는 것은
형태가 변했다는 뜻이니까

00:10:58.698 --> 00:11:00.803

용언의 활용형에서
나타난 거 맞아요.

00:11:00.903 --> 00:11:01.927

용언이니까요.

00:11:02.027 --> 00:11:04.996

여기는 저라고 해서 단모음으로
발음해도 된다는 거니까

00:11:05.096 --> 00:11:09.244

1번 선택지 보면 여는
단모음으로 발음합니다.

00:11:09.344 --> 00:11:11.271

적절하겠네요, 1번 선택지는.

00:11:11.371 --> 00:11:12.708

2번을 볼까요?

00:11:12.808 --> 00:11:18.865

㉠과 ㉡을 비교해 봤을 때 레와
예는 예의 이중 모음으로 발음한다.

00:11:18.965 --> 00:11:22.554

예는 이거밖에 발음이 안 되는 거니까
이중 모음으로 발음한다는 겁니다.

00:11:22.654 --> 00:11:26.097

그런데 그 외의 경우에는
단모음으로 발음해도 된다.

00:11:26.197 --> 00:11:30.350

여기에서 보면 똑같은 예지만
예, 레 같은 경우는

00:11:30.450 --> 00:11:32.568

이중 모음밖에 발음이
안 되는 거고요.

00:11:32.668 --> 00:11:35.376

여기에서 혜 같은
경우는 은혜, 은혜.

00:11:35.476 --> 00:11:38.611

즉, 단모음으로도 발음이
된다는 걸 알 수 있죠?

00:11:38.711 --> 00:11:41.449
그러니까 2번 선택지도 적절합니다.

00:11:41.549 --> 00:11:42.684
3번을 볼까요?

00:11:42.784 --> 00:11:47.577
의사, 의지, 무늬, 흰
이런 단어가 나왔네요.

00:11:47.677 --> 00:11:49.448
3번 볼까요?

00:11:49.548 --> 00:11:53.599
㉠을 보니까 자음을 첫소리로
가지고 있는 음절의 의는,

00:11:53.699 --> 00:11:56.228
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
있다는 얘기는 애예요.

00:11:56.328 --> 00:11:58.850
무늬 할 때 니죠.

00:11:58.950 --> 00:12:00.896
여기에서 니이 있잖아요.

00:12:00.996 --> 00:12:03.911
그다음에 흰 할 때 흥이
여기 있잖아요, 그렇죠?

00:12:04.011 --> 00:12:09.189
이럴 때는 음절의 의는 이중 모음으로
발음해도 되고, 이게 틀렸네요.

00:12:09.289 --> 00:12:12.271
여기 보니까 의라고
하는 게 이중 모음인데

00:12:12.371 --> 00:12:14.294
의로 발음한 게 아니라
이로 발음했잖아요.

00:12:14.394 --> 00:12:16.895
의가 아니라 이로 발음했잖아요.

00:12:16.995 --> 00:12:18.658
그러니까 뭐로 발음했다는 얘기에요?

00:12:18.758 --> 00:12:21.000
단모음으로 발음했다는
얘기잖아요, 그렇죠?

00:12:21.100 --> 00:12:24.794
그러니까 이중 모음으로 발음해도
되고라는 말이 틀렸죠.

00:12:24.894 --> 00:12:27.659
여기에서는 한 가지밖에
발음이 안 되는 거니까

00:12:27.759 --> 00:12:30.403

단모음으로 발음해도
됩니다라고 했을 때

00:12:30.503 --> 00:12:34.239

이중 모음으로 발음해도
된다는 말이 틀린 거네요.

00:12:34.339 --> 00:12:35.948

정답 3번이 정답이죠.

00:12:36.048 --> 00:12:43.810

㉠을 보니까 단어의 첫음절 이외의
의는 단모음 이로 발음해도 된다.

00:12:43.910 --> 00:12:47.413

의가 첫 번째 나왔을 때는
여러분, 보면 의사할 때는

00:12:47.513 --> 00:12:50.006

무조건 이중 모음밖에
발음이 안 되는 거죠.

00:12:50.106 --> 00:12:54.463

그런데 정의 할 때는 이제 2음절,
두 번째 음절에 나왔을 때는

00:12:54.563 --> 00:12:58.117

이중 모음으로 발음해도 되고,
단모음으로도 발음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.

00:12:58.217 --> 00:13:00.941

단모음 이로 발음해도 됩니다.

00:13:01.041 --> 00:13:02.266

4번도 적절하죠.

00:13:02.366 --> 00:13:05.302

㉠을 보니까 조사 의는
단모음 에로 발음하는 것도

00:13:05.402 --> 00:13:08.129

허용합니다라고 했을 때
나의가 의도 되고,

00:13:08.229 --> 00:13:09.922

에도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.

00:13:10.022 --> 00:13:12.650

이거는 뭐 시력
문제입니다, 여러분.

00:13:12.750 --> 00:13:16.232

정답은 3번이 정답이었습니다.

00:13:16.332 --> 00:13:17.623

그다음 내용 한번 가볼까요?

00:13:17.723 --> 00:13:19.309

4번 문제 보겠습니다.

00:13:19.409 --> 00:13:22.967
4번 문제 보시면 보기를 참고했을
때 조건을 만족시키는 문장으로

00:13:23.067 --> 00:13:25.310
적절한 것을 한번 골라
보라고 얘기했는데.

00:13:25.410 --> 00:13:29.139
문장 성분이 7개가 설명이
되어 있고요, 설명은 아니죠.

00:13:29.239 --> 00:13:30.826
7개 나왔고, 높임법 나왔습니다.

00:13:30.926 --> 00:13:34.909
그러면 뭘 찾으라는 얘기냐면
관형어를 포함하합니다.

00:13:35.009 --> 00:13:36.574
그러면 관형어가 뭘지 아셔야죠.

00:13:36.674 --> 00:13:41.803
관형어는 뭘 수식하는 거냐면 체언을
수식할 때 그걸 관형어라고 합니다.

00:13:41.903 --> 00:13:44.610
그다음 객체 높임이라고
하는 것은 바로 뭐였냐면

00:13:44.710 --> 00:13:49.038
객체 높임은 문장에서
목적어나 을, 를이죠?

00:13:49.138 --> 00:13:50.339
부사어죠, ~에게.

00:13:50.439 --> 00:13:53.372
부사어가 높은 사람일
때 나타나는 높임법이

00:13:53.472 --> 00:13:56.041
바로 객체 높임법이 되겠네요.

00:13:56.141 --> 00:13:57.763
가보겠습니다.

00:13:57.863 --> 00:14:00.730
관형어가 있는지, 객체
높임이 사용됐는지

00:14:00.830 --> 00:14:02.611
그 두 가지를 확인하셔야 될
것 같습니다, 그렇죠?

00:14:02.711 --> 00:14:07.476
1번 보면 미영이는 할머니를
정성스럽게 모셨다 할 때

00:14:07.576 --> 00:14:12.511

우선 높은 사람이 뭐냐면 할머니인데
틀이 붙었으니까 객체 높임 맞죠.

00:14:12.611 --> 00:14:15.894

정성스럽게 모셨다라고
하면 모시다라고 하는 게

00:14:15.994 --> 00:14:18.449

바로 이제 객체 높임을
나타내고 있는 거니까

00:14:18.549 --> 00:14:20.201

객체 높임은 가능합니다.

00:14:20.301 --> 00:14:24.650

그러나 정성스럽게라고 하는 게
체언을 수식하는 게 아니죠?

00:14:24.750 --> 00:14:26.341

부사어가 쓰였잖아요.

00:14:26.441 --> 00:14:27.661

그러니까 관형어는 없는 거죠.

00:14:27.761 --> 00:14:29.168

그러니까 1번은 틀렸고.

00:14:29.268 --> 00:14:32.590

그다음에 2번을 보면,
2번의 객체 높임이 뭐냐면

00:14:32.690 --> 00:14:35.609

선생님에게가 아니고 선생님께니까
객체 높임이 있죠.

00:14:35.709 --> 00:14:37.926

그다음에 체언을
수식하는 게 있어요?

00:14:38.026 --> 00:14:39.159

있죠.

00:14:39.259 --> 00:14:41.349

모르는 문제할 때
문제가 체언이잖아요.

00:14:41.449 --> 00:14:44.802

명사니까 모르는이 문제를
꾸며주는 거니까

00:14:44.902 --> 00:14:46.390

관형어도 있는 거죠.

00:14:46.490 --> 00:14:48.169

정답 2번이 정답이네요.

00:14:48.269 --> 00:14:52.766

3번을 보면 어머니께서라고 했으니까
이거 께서는 주체 높임입니다.

00:14:52.866 --> 00:14:55.539

문장의 주어가 높은 거죠.

00:14:55.639 --> 00:14:59.428

그다음에 다친 나에게, 나라고 하는 게 대명사잖아요.

00:14:59.528 --> 00:15:03.968

대명사를 높여주는 거니까 관형어는 존재합니다.

00:15:04.068 --> 00:15:07.028

4번을 보면 아버지의 생일 선물로 샀다.

00:15:07.128 --> 00:15:08.802

4번은 높임법이 아예 없어요.

00:15:08.902 --> 00:15:11.219

아버지가 있지만, 여기에서는 아버지를 높이지 않아요.

00:15:11.319 --> 00:15:14.679

아버지의 생일 선물이라고 그냥 표현했으니까 높인 건 아니에요.

00:15:14.779 --> 00:15:17.570

새라고 하는 게 신발을 꾸며주고 있습니다.

00:15:17.670 --> 00:15:18.763

이것도 있네요.

00:15:18.863 --> 00:15:21.855

아버지의 생일, 아버지가 생일도 꾸며주고 있죠.

00:15:21.955 --> 00:15:23.239

또 하나 있습니다.

00:15:23.339 --> 00:15:24.818

생일이 선물도 꾸며주고 있어요.

00:15:24.918 --> 00:15:28.107

그러니까 높임은 아예 없었고요.

00:15:28.207 --> 00:15:31.618

관형어는 지금 3개가 보입니다, 제가 봤을 때.

00:15:31.718 --> 00:15:35.189

손자는 할아버지께라고 했으니까 객체 높임 쓰였고요.

00:15:35.289 --> 00:15:38.201

그다음에 관형어가 없죠.

00:15:38.301 --> 00:15:40.664

체언을 수식해주는 관형어가 보이지 않네요.

00:15:40.764 --> 00:15:43.403

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.

00:15:43.503 --> 00:15:49.933
보기는 한글의 음가와 운용법을,
이제 자음, 모음을

00:15:50.033 --> 00:15:52.414
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에
대한 문제입니다.

00:15:52.514 --> 00:15:54.588
훈민정음 예의의 일부이다.

00:15:54.688 --> 00:15:57.284
㉠~㉢에 대해서 이해한
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00:15:57.384 --> 00:15:59.153
이게 무슨 얘기냐?

00:15:59.253 --> 00:16:01.563
1번 선택지부터 가보겠습니다.

00:16:01.663 --> 00:16:06.777
㉠을 보니까 자음 ㄱ을 나란히
적어 같은 위치에서 소리 나는

00:16:06.877 --> 00:16:09.121
거센소리를 구안했음을 알 수
있다고 되어 있는데.

00:16:09.221 --> 00:16:13.995
이게 뭐냐면 ㄱ은 엄쪼리니,
ㄱ은 어금니 소리니

00:16:14.095 --> 00:16:17.112
군자 처음 펴 나는 소리 가타니.

00:16:17.212 --> 00:16:19.389
군이라는 한자가 있잖아요.

00:16:19.489 --> 00:16:23.112
군자의 처음 펴아 나는 소리,
처음 펴서 나는 소리는 뭐예요?

00:16:23.212 --> 00:16:24.981
군자의 ㄱ이쪼, ㄱ.

00:16:25.081 --> 00:16:27.216
그러니까 ㄱ이라는
소리를 설명한 거예요.

00:16:27.316 --> 00:16:29.694
ㄱ이라는 소리를 설명한
거야, 오케이?

00:16:29.794 --> 00:16:34.185
그런데 갈바쓰면이라고 해서 갈바쓰면,
나란히 쓰면 이런 뜻이에요.

00:16:34.285 --> 00:16:38.422

나란히 쓰면 꺾자 처음
펴아 나는 소리 가타나라.

00:16:38.522 --> 00:16:40.680
꺾라고 하는 게 쌍기이잖아요.

00:16:40.780 --> 00:16:43.777
그러면 뭘 설명한 거냐면
쌍기를 설명한 거죠.

00:16:43.877 --> 00:16:45.341
이건 된소리입니다.

00:16:45.441 --> 00:16:46.707
그러니까 1번 선택지가 틀렸어요.

00:16:46.807 --> 00:16:49.097
거센소리가 아니고
된소리임을 알 수 있죠.

00:16:49.197 --> 00:16:52.302
당연히 답이 1번이
나왔네요, 그렇죠?

00:16:52.402 --> 00:16:57.308
그다음에 2번을 보시면
2번은 ㉠과 ㉡을 보니까

00:16:57.408 --> 00:17:01.101
한자음에 초성을 이용해서 자음의
음가를 중성을 이용해서

00:17:01.201 --> 00:17:02.634
모음의 음가를 설명했다.

00:17:02.734 --> 00:17:06.654
㉠을 보니까 한자의 군자,
꺾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

00:17:06.754 --> 00:17:09.012
기과 기을 설명한 거죠.

00:17:09.112 --> 00:17:13.598
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가운뎃소리
가타나라라고 얘기했으니까

00:17:13.698 --> 00:17:17.128
여기에서 이 가운뎃소리라고 하는
건 아래아를 설명하는 거니까

00:17:17.228 --> 00:17:18.551
모음을 설명하는 거죠.

00:17:18.651 --> 00:17:21.032
그러니까 2번 선택지도 적절합니다.

00:17:21.132 --> 00:17:22.767
2번 선택지는 적절한 거죠.

00:17:22.867 --> 00:17:25.807
3번, ㉢을 보니까 중성은

따로 만들지 않고

00:17:25.907 --> 00:17:29.292
초성의 자음을 다시 한번 사용한다는
규칙을 세웠다고 했는데.

00:17:29.392 --> 00:17:33.391
냉중소리는, 나중의 소리는,
맨 마지막 소리는.

00:17:33.491 --> 00:17:35.765
다시 첫소리를 쓰느니라.

00:17:35.865 --> 00:17:40.133
이게 바로 중성부용초성이라고 해서
글자를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

00:17:40.233 --> 00:17:41.955
다시 쓴다는 걸
보여주고 있는 겁니다.

00:17:42.055 --> 00:17:43.688
이것도 적절했네요.

00:17:43.788 --> 00:17:46.132
ㄹ을 보니까 ㄱ, ㅂ,
ㅍ 밑에 ㅇ을 붙여서

00:17:46.232 --> 00:17:51.214
가까운 소리 느낌인, 이거 순경음 ㅂ,
순경음 ㄱ, 순경음 ㅍ입니다.

00:17:51.314 --> 00:17:55.670
구안했다는 거니까 ㅇ을 입술소리
아래 니쳐 쓰면, 소리 아래다가.

00:17:55.770 --> 00:17:57.931
입술 소리가 느, 브, 프잖아요.

00:17:58.031 --> 00:18:02.341
여기다가 이어서 쓰면 밑에 ㅇ으로
쓴다면 입술 가뵈야만 소리니라.

00:18:02.441 --> 00:18:04.231
입술 가벼운 소리가 된다.

00:18:04.331 --> 00:18:06.861
그러니까 입이 가벼운 소리라고
하는 게 바로 뭐냐면

00:18:06.961 --> 00:18:09.606
순경음이 된다, 이런 뜻입니다.

00:18:09.706 --> 00:18:13.758
그다음 ㄹ 보니까 자음과 모음이
어울려 소리가 만들어진다는 점을

00:18:13.858 --> 00:18:15.530
설명하려고 했다고 했는데.

00:18:15.630 --> 00:18:18.459

물위짜 모로매 어우러자
소리가 난다.

00:18:18.559 --> 00:18:21.002

어우러져서 소리가 난다,
이런 뜻이에요.

00:18:21.102 --> 00:18:23.269

그러니까 정답 5번도 적절합니다.

00:18:23.369 --> 00:18:25.175

정답은 1번이 정답이죠.

00:18:25.275 --> 00:18:28.889

거센 소리가 아니라 된소리였다는
걸 알 수 있습니다.

00:18:28.989 --> 00:18:31.326

실전 문제 첫 번째 마쳤습니다.

00:18:31.426 --> 00:18:34.762

어려운 문제도 있었고요, 어렵지
않은 문제도 있었는데요.

00:18:34.862 --> 00:18:37.172

아무튼 어려운 문제는
반드시 한번 나옵니다.

00:18:37.272 --> 00:18:40.250

얼마 전에 여러분,
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,

00:18:40.350 --> 00:18:43.323

고등학교 1, 2, 3학년 모의고사
봤는데 정말 어려웠습니다.

00:18:43.423 --> 00:18:46.622

문법이 정말 상상할 수 없을
정도로 좀 어려웠어요.

00:18:46.722 --> 00:18:50.344

그러니까 문법 공부는 여러분이
잘 하셔야 됩니다, 아시겠죠?

00:18:50.444 --> 00:18:52.457

첫 번째 한번 가볼까요?

00:18:52.557 --> 00:18:55.969

첫 번째 보시면 ㉠~㉡에 대한
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.

00:18:56.069 --> 00:18:59.289

하룻길에 민지와 세라가
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.

00:18:59.389 --> 00:19:03.748

세라야, 너, 너는 바로 세라겠죠.

00:19:03.848 --> 00:19:05.419

그 분식집 가봤어?

00:19:05.519 --> 00:19:10.907
그 분식집이라고 하는 건 민지가
생각하고 있는 어떠한 분식집이겠죠?

00:19:11.007 --> 00:19:14.487
안 가봤으면 이번 일요일에
우리 같이 가볼까?

00:19:14.587 --> 00:19:17.664
우리라고 하는 건 세라와
민지 둘 다 나타나겠죠.

00:19:17.764 --> 00:19:19.832
그럼 그럴까라고 얘기했어요.

00:19:19.932 --> 00:19:21.140
둘이 어디 가기로 했어?

00:19:21.240 --> 00:19:22.222
범준이가 물어봅니다.

00:19:22.322 --> 00:19:23.230
범준아 오랜 만이네.

00:19:23.330 --> 00:19:25.133
몇 달 전에 우리 동네
분식집이 새로 생겼는데,

00:19:25.233 --> 00:19:26.724
그게 바로 그 분식집이죠.

00:19:26.824 --> 00:19:27.766
아주 맛있대.

00:19:27.866 --> 00:19:29.874
아, 거기, 그 분식집이죠.

00:19:29.974 --> 00:19:31.131
애도 알고 있는 거예요.

00:19:31.231 --> 00:19:32.418
난 지난주에 가봤어.

00:19:32.518 --> 00:19:33.363
좋았겠다.

00:19:33.463 --> 00:19:36.141
거기도 괜찮긴 한데, 세운
고등학교 앞에 있는 분식집이

00:19:36.241 --> 00:19:37.570
더 유명해, 같이 갈래?

00:19:37.670 --> 00:19:39.055
거기는 우리 집에서 너무 멀어.

00:19:39.155 --> 00:19:42.348
여기 이 거기라고 하는 것은
여기 거기, ㉸의 거기하고

00:19:42.448 --> 00:19:43.568

다르다는 거 알 수 있겠죠.

00:19:43.668 --> 00:19:44.657
우리 집에서 너무 멀어.

00:19:44.757 --> 00:19:45.631
나는 안 갈래.

00:19:45.731 --> 00:19:46.762
나는 세라만 나타내고요.

00:19:46.862 --> 00:19:49.124
그래, 시험 기간인데 분식
먹자고 몇 시간씩 허비하는 건

00:19:49.224 --> 00:19:51.702
누구도 좋아하지 않을 거야.

00:19:51.802 --> 00:19:54.324
이런 것들이 뭐냐면 누구도
좋아하지 않을 거야.

00:19:54.424 --> 00:19:57.376
이 누구라고 하는 게 미지칭하고
부정층 중의 하나인데,

00:19:57.476 --> 00:19:59.237
이거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.

00:19:59.337 --> 00:20:02.054
그럼 민지가 말한 곳으로
우리 같이 가자라고 했으니까

00:20:02.154 --> 00:20:05.860
여기에서 우리는 민지, 범준이, 세라
다 나타낸다는 걸 알 수 있죠.

00:20:05.960 --> 00:20:07.508
가볼게요.

00:20:07.608 --> 00:20:09.195
1번 보겠습니다.

00:20:09.295 --> 00:20:10.436
적절하지 않은 것.

00:20:10.536 --> 00:20:12.448
㉠과 ㉡은 동일 인물로.

00:20:12.548 --> 00:20:14.798
㉡은 나, 세라죠.

00:20:14.898 --> 00:20:19.660
㉠은 뭐냐면 앞에 여기죠?

00:20:19.760 --> 00:20:22.382
세라야, 너라고 했으니까
동일 인물이다.

00:20:22.482 --> 00:20:24.861
1번 선택지 적절하네요.

00:20:24.961 --> 00:20:28.061

㉮의 의미를 범준이가 바로
파악하지 못한 것은.

00:20:28.161 --> 00:20:32.293

㉮ 담화 맥락의 공유가
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했는데.

00:20:32.393 --> 00:20:33.464

그 분식점 가 봤어?

00:20:33.564 --> 00:20:35.583

안 가봤으면 이번 주에
가볼까라고 했는데.

00:20:35.683 --> 00:20:38.671

범준이가 둘이 어디 가기로 했어?

00:20:38.771 --> 00:20:41.591

예를 들어서 범준이가
바로 파악하지 못한 것은

00:20:41.691 --> 00:20:45.957

어디 가기로 했다는 것은 그
앞에 나왔던 그 분식점에 대해서

00:20:46.057 --> 00:20:49.881

얘기하고 있는지를 잘 몰랐기 때문이니까
2번 선택지도 적절합니다.

00:20:49.981 --> 00:20:52.886

담화 내용에서 어딘지
파악을 못하고 있잖아요.

00:20:52.986 --> 00:20:56.752

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앞에 민지하고
세라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

00:20:56.852 --> 00:20:59.986

그걸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
어디 가기로 했어? 라고

00:21:00.086 --> 00:21:01.618

질문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.

00:21:01.718 --> 00:21:05.520

그다음에 ㉮과 ㉮은 화자와
청자를 모두 포함하지만,

00:21:05.620 --> 00:21:07.643

가리키는 대상의 수에서 차이난다.

00:21:07.743 --> 00:21:10.442

㉮은 바로 뭐냐면 우리 같이 갈까?

00:21:10.542 --> 00:21:11.670

민지, 세라고요.

00:21:11.770 --> 00:21:14.212

여기 나오는 우리라고 하면

범준이까지 포함하는 거니까

00:21:14.312 --> 00:21:16.516
인원이 서로 다르겠죠.

00:21:16.616 --> 00:21:25.286
㉠과 ㉡은 지시하는 대상이
다르지만, ㉠과 ㉡이 뭐죠?

00:21:25.386 --> 00:21:30.286
거기, 그 분식점이고요.

00:21:30.386 --> 00:21:32.199
거기는 새로운 분식점이잖아요.

00:21:32.299 --> 00:21:35.807
가리키는 대상은 다르지만,
같은 대명사 이용했죠.

00:21:35.907 --> 00:21:38.608
거기라고 하는 똑같은 대명사
이용했으니까 맞습니다.

00:21:38.708 --> 00:21:42.276
㉢을 보면 ㉣은 누구도 좋아하지
않을 거야라고 했을 때

00:21:42.376 --> 00:21:47.325
㉣은 대화 맥락을 고려할 때
세라를 가리킨다고 했는데,

00:21:47.425 --> 00:21:49.020
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거죠.

00:21:49.120 --> 00:21:50.982
그럼 이거는 뭐라고
하나면요, 여러분.

00:21:51.082 --> 00:21:52.761
부정층이라고 합니다, 부정층.

00:21:52.861 --> 00:21:54.969
이거 하나만 설명을 좀 드릴까요?

00:21:55.069 --> 00:21:57.700
미지층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.

00:21:57.800 --> 00:22:00.876
부정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.

00:22:00.976 --> 00:22:03.601
미지층은 뭐냐면 누군지
사실을 모를 때.

00:22:03.701 --> 00:22:06.095
그거를 이제 미지층이라고 하고요.

00:22:06.195 --> 00:22:11.316
부정층은 뭐냐면
정해지지 않았을 때.

00:22:11.416 --> 00:22:14.575

정해지지 않았을 때 그걸
부정증이라고 합니다.

00:22:14.675 --> 00:22:17.806

미지, 알 지 자,
모르다 이런 뜻이거든.

00:22:17.906 --> 00:22:19.444

알지 못할 때, 모를 때.

00:22:19.544 --> 00:22:21.999

부정증, 정해지지 않았을
때 이런 뜻이에요.

00:22:22.099 --> 00:22:26.905

예를 들면 넌 누구나라고 얘기했을 때
이거는 누군지 모르는 거잖아요.

00:22:27.005 --> 00:22:28.951

미지증이고요.

00:22:29.051 --> 00:22:34.573

누구나 잔다 이렇게 썼으면
이거는 바로 뭐냐면

00:22:34.673 --> 00:22:36.508

부정증에 해당하는 거죠.

00:22:36.608 --> 00:22:39.154

그럼 여기 나오는 누구도
좋아하지 않을 거야라고 하면

00:22:39.254 --> 00:22:42.460

여기에서 누구는 모르는
것이 아니라 정해지지 않은

00:22:42.560 --> 00:22:44.476

어떤 사람들도 좋아하지
않는다 이런 뜻이죠.

00:22:44.576 --> 00:22:46.912

그런데 이게 옛날에 모의고사
나왔을 때 아주 어려웠습니다.

00:22:47.012 --> 00:22:48.373

질문 하나 할까요, 여러분?

00:22:48.473 --> 00:22:53.515

뭘 먹을래라고 질문이 나왔어요.

00:22:53.615 --> 00:22:56.124

여기 뭘은 무엇일의 준말이잖아요.

00:22:56.224 --> 00:23:00.737

뭘 먹을래 할 때 이 뭘에 해당하는
것은 미지증일까요, 부정증일까요?

00:23:00.837 --> 00:23:02.870

여러분, 대답해 보세요.

00:23:02.970 --> 00:23:04.878

거의 정답률이 20%도
안 됐습니다.

00:23:04.978 --> 00:23:07.822

뭘 먹을래라고 하면 이건
뭐냐면 미지층이에요.

00:23:07.922 --> 00:23:10.181

제가 되게 어이없이 설명할
건데요, 여러분.

00:23:10.281 --> 00:23:14.008

뭘 먹을래 이게 왜 미지층이냐면
무엇을 먹을지 모르기 때문에

00:23:14.108 --> 00:23:15.236

미지층이에요.

00:23:15.336 --> 00:23:18.474

선생님, 무엇을 먹을지
정해지지도 않은 거잖아요.

00:23:18.574 --> 00:23:20.732

그렇죠, 그러니까 이렇게
설명하면 안 되고요.

00:23:20.832 --> 00:23:24.993

이게 가장 좋은
방법입니다, 보세요.

00:23:25.093 --> 00:23:29.537

미지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
얘들아,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.

00:23:29.637 --> 00:23:33.785

영어의 의문사로 번역이
되면 미지층입니다.

00:23:33.885 --> 00:23:38.131

우리 국어는 영어 문법을
거의 흉내냈거든요.

00:23:38.231 --> 00:23:41.126

그래서 영어 문법을 흉내냈기
때문에 영어 문법에서

00:23:41.226 --> 00:23:44.077

의문사로 쓰였으면
그게 미지층이고요.

00:23:44.177 --> 00:23:49.256

의문사가 아니에요 그러면 부정층이라고
합니다, 의문사가 아니면.

00:23:49.356 --> 00:23:51.647

예를 들어서 넌 누구냐
할 때 이건 뭐예요?

00:23:51.747 --> 00:23:53.824

영어로 번역하면 who

이렇게 되겠죠.

00:23:53.924 --> 00:23:56.630
누구나 잔다라고 하면
anybody.

00:23:56.730 --> 00:23:59.660
그럼 뭘 먹을래 이거 영어로
번역하면 어떻게 돼요?

00:23:59.760 --> 00:24:02.585
What do you eat이라고
해서 what이라고 하는 의문사로

00:24:02.685 --> 00:24:03.630
번역이 되잖아요.

00:24:03.730 --> 00:24:06.049
그럴 때 미지층이라고
얘기할 수 있습니다.

00:24:06.149 --> 00:24:08.521
꼭 기억해 두시면 유용할 겁니다.

00:24:08.621 --> 00:24:10.239
그다음 보겠습니다.

00:24:10.339 --> 00:24:14.270
(가)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
않은 것을 한번 찾아 보라고

00:24:14.370 --> 00:24:19.816
얘기를 했는데, 그러면 부사의 쓰임,
연결 위치에 대해서 이해한다.

00:24:19.916 --> 00:24:21.583
1번 선택지를 볼게요.

00:24:21.683 --> 00:24:24.673
㉠을 통해서 부사는 용언뿐 아니라

00:24:24.773 --> 00:24:27.342
다른 부사나 관형사를 수식함을
알 수 있다라고 했는데.

00:24:27.442 --> 00:24:28.969
글씨가 좀 잘 안 보일 것 같다.

00:24:29.069 --> 00:24:32.003
차가 매우 빠르다, 매우가
빠르다를 꾸며주고요.

00:24:32.103 --> 00:24:35.468
매우가 잘 간다 할 때
매우 잘도 꾸며주죠.

00:24:35.568 --> 00:24:38.729
매우가 새 물건이다, 매우가
새도 꾸며주고 있죠.

00:24:38.829 --> 00:24:42.498

그러니까 다른 부사도 되고
관형사도 꾸며줍니다.

00:24:42.598 --> 00:24:46.186
2번, ㉠을 통해 부사 중에서는
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것도

00:24:46.286 --> 00:24:50.510
있다고 할 때 이 과연이라고
하는 게 과연 오늘 비가 올까?

00:24:50.610 --> 00:24:53.499
오늘 비가 올까를 과연이라고
하는 말로 꾸며주고 있는 거죠.

00:24:53.599 --> 00:24:56.531
오늘 비가, 과연이 올까만
꾸며주고 있습니다.

00:24:56.631 --> 00:24:59.273
그러니까 문장 부사는 맨
앞에 위치하고 있다.

00:24:59.373 --> 00:25:00.795
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

00:25:00.895 --> 00:25:01.631
3번 볼까요?

00:25:01.731 --> 00:25:04.831
㉡과 ㉢을 통해서 부사 중에서
문장 안에서의 위치가

00:25:04.931 --> 00:25:06.488
자유로운 것과 그렇지
않은 것이 있다.

00:25:06.588 --> 00:25:07.633
확인해 보면 되죠.

00:25:07.733 --> 00:25:11.039
㉣은 맨 앞에 왔지만, 여기에서는
과연이라고 해서 중간에 왔잖아요.

00:25:11.139 --> 00:25:15.617
그다음에 ㉤을 보면 밥을 아주 많이
먹었다 할 때 아주와 많이 볼까요?

00:25:15.717 --> 00:25:18.305
많이 아주 먹었다,
이건 어색하잖아요.

00:25:18.405 --> 00:25:20.707
그러니까 ㉣은 자연스럽게
왔다 갔다 했는데.

00:25:20.807 --> 00:25:24.214
㉤은 왔다 갔다 하지 않았으니까
3번 선택지도 정확하게

00:25:24.314 --> 00:25:26.353

똑같음을 알 수 있죠.

00:25:26.453 --> 00:25:28.475
4번 볼게요.

00:25:28.575 --> 00:25:34.254
㉠과 ㉡을 통해서 부사는 격조사나
보조사와 결합할 수 있음을

00:25:34.354 --> 00:25:35.602
알 수 있다 했는데.

00:25:35.702 --> 00:25:37.564
저는 벌써 답을 찾았는데요?

00:25:37.664 --> 00:25:41.720
㉢, 일을 빨리가 는을 만났어요.

00:25:41.820 --> 00:25:43.761
많이가 도를 만났어요.

00:25:43.861 --> 00:25:45.607
무사히가 만을 만났어요.

00:25:45.707 --> 00:25:46.943
전부 다 보조사입니다.

00:25:47.043 --> 00:25:49.069
절대 격조사와는 결합할
수 없습니다.

00:25:49.169 --> 00:25:51.225
절대 격조사와 결합할 수 없습니다.

00:25:51.325 --> 00:25:54.466
다행히도라고 할 때 도도
역시 보조사입니다.

00:25:54.566 --> 00:25:57.137
부사는 격조사와 절대
결합할 수 없습니다.

00:25:57.237 --> 00:26:00.883
체언과 결합을 할 수 있는
게 바로 격조사거든요.

00:26:00.983 --> 00:26:03.425
주로 이제 체언과
결합하는 거거든요.

00:26:03.525 --> 00:26:07.704
여기 나오는 는, 도, 만이라고
하는 것은 전부 다 보조사입니다.

00:26:07.804 --> 00:26:09.017
정답 4번이에요.

00:26:09.117 --> 00:26:12.066
㉢을 통해 부사가 여러 개 이어질 때
일정한 순서가 있음을 알 수 있다.

00:26:12.166 --> 00:26:13.235
당연하죠.

00:26:13.335 --> 00:26:15.156
저리 잘 안 먹는 이는 처음이다.

00:26:15.256 --> 00:26:17.463
안 잘 저리 먹는
이는 말도 안 되죠.

00:26:17.563 --> 00:26:21.589
정답은 4번이 정답임을
알 수 있습니다.

00:26:21.689 --> 00:26:23.348
3번을 볼까요?

00:26:23.448 --> 00:26:25.859
3번은 문장의 중의성에
대한 문제예요.

00:26:25.959 --> 00:26:27.600
중의성을 학습하기 위한 자료이다.

00:26:27.700 --> 00:26:30.641
보기 1의 설명을 참고해서 보기
2에 제시된 문장의 중의성을

00:26:30.741 --> 00:26:32.399
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탐구할 때

00:26:32.499 --> 00:26:34.925
적절하지 않은 것을
고르라고 얘기했어요.

00:26:35.025 --> 00:26:39.667
문장의 중의성이란 문장을 여러
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.

00:26:39.767 --> 00:26:43.532
단어의 중의성, 단어 자체가 중의성,
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.

00:26:43.632 --> 00:26:46.654
문장의 구조 차이에
의한 통사적 중의성,

00:26:46.754 --> 00:26:48.869
부정 표현으로 인한
중의성들이 있는 거죠.

00:26:48.969 --> 00:26:51.096
적절하지 않은 것을
한번 골라 봐라.

00:26:51.196 --> 00:26:52.516
1번 선택지 보겠습니다.

00:26:52.616 --> 00:26:55.047
㉠은 단어의 의미를 구분할
수 있는 내용을 추가해서

00:26:55.147 --> 00:26:57.681
우리 엄마는 손의 크기가 크다로
수정하면 중의성이 없어지죠.

00:26:57.781 --> 00:27:01.951
우리 엄마는 손이 크다고 하면
진짜 신체적인 손이 큰 건지

00:27:02.051 --> 00:27:04.241
아니면 썸썸이가 큰 건지니까.

00:27:04.341 --> 00:27:08.995
손의 크기가 크다 이렇게 구체적으로
만들면 중의성이 없어집니다.

00:27:09.095 --> 00:27:10.227
적절하네요.

00:27:10.327 --> 00:27:13.424
㉠은 간접 사동문으로
수정해서 엄마가 동생에게

00:27:13.524 --> 00:27:15.426
밥을 먹게 하셨다라고 함으로써
중의성을 해소할 수 있다.

00:27:15.526 --> 00:27:16.588
어렵습니다.

00:27:16.688 --> 00:27:19.668
엄마가 동생에게 밥을
먹이셨다라고 하면

00:27:19.768 --> 00:27:24.066
이가 직접 사동의 의미도 되고,
간접 사동의 의미도 다 돼요.

00:27:24.166 --> 00:27:28.170
이라고 하는 접사가 들어가면, 접사를
이용해서 사동 표현을 만들면

00:27:28.270 --> 00:27:31.822
예를 들면 밥을 먹이셨다라고
하면 입을 벌려

00:27:31.922 --> 00:27:34.304
손가락을 집어넣어주는
거예요, 직접.

00:27:34.404 --> 00:27:37.106
두 번째는 뭐냐면 저기 밥
차려져 있으니까 가서 먹어라고

00:27:37.206 --> 00:27:39.173
명령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.

00:27:39.273 --> 00:27:43.578
그런데 먹게 하셨다라고 하면
간접적 의미만 나타나는 거죠.

00:27:43.678 --> 00:27:45.241
그다음에 ㉠을 볼까요?

00:27:45.341 --> 00:27:47.445
㉠은 반점을 넣어서, 썬표죠.

00:27:47.545 --> 00:27:51.121
나는 예쁜 친구의, 동생을 만났다고
수정한다면 중의성이 없어집니다.

00:27:51.221 --> 00:27:54.857
예쁜이 친구도 꾸며주고,
동생도 꾸며줄 수 있거든요.

00:27:54.957 --> 00:27:58.596
그러니까 예쁜 친구의
다음에 썬표를 넣으면

00:27:58.696 --> 00:28:01.244
그게 바로 중의성이 없어지는 거죠.

00:28:01.344 --> 00:28:06.582
그다음에 ㉡은 학생들이 학교에
다 오지 않았다고 하면

00:28:06.682 --> 00:28:09.810
일부분은 왔다, 아예 한 명도
안 왔다 이런 뜻이잖아요.

00:28:09.910 --> 00:28:14.619
다 오지는 않았다고 이렇게
는이라는 말을 집어넣잖아요.

00:28:14.719 --> 00:28:16.608
보조사 집어넣으면
중의성이 없어집니다.

00:28:16.708 --> 00:28:18.458
적절하네요.

00:28:18.558 --> 00:28:21.437
나는 언니보다 영화를 더
좋아한다, 이건 뭐예요?

00:28:21.537 --> 00:28:24.076
첫 번째, 언니하고
영화를 비교한 거죠.

00:28:24.176 --> 00:28:26.272
언니 싫어, 영화 좋아 이거고요.

00:28:26.372 --> 00:28:30.093
언니가 영화를 좋아하고
나도 영화를 좋아하는데

00:28:30.193 --> 00:28:34.361
언니가 좋아하는 정도보다 내가
좋아하는 정도가 훨씬 크다는 거예요.

00:28:34.461 --> 00:28:36.569
그런데 그걸 어떻게

바뀐는지 볼까요?

00:28:36.669 --> 00:28:43.703
문장의 구조를 바꿔서 언니는 나보다 영화를 더 좋아한다라고 하면

00:28:43.803 --> 00:28:45.996
이것도 또 다른 중의성이죠.

00:28:46.096 --> 00:28:48.029
나하고 영화가 비교되는 거예요.

00:28:48.129 --> 00:28:50.365
그때 언니가 영화를 더 좋아해.

00:28:50.465 --> 00:28:52.091
나 너 싫어, 영화 선택할 거야 이거고.

00:28:52.191 --> 00:28:56.842
나도 영화 좋아하고 언니도 좋아하는데 언니가 좋아하는 정도가

00:28:56.942 --> 00:28:58.595
더 크다는 거죠.

00:28:58.695 --> 00:29:01.938
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또 다른 중의성이 나타나는 겁니다.

00:29:02.038 --> 00:29:04.630
그래서 정답이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.

00:29:04.730 --> 00:29:06.154
넘어갑니다.

00:29:06.254 --> 00:29:07.944
4번 보겠습니다.

00:29:08.044 --> 00:29:10.181
음운의 변동에 대해서 수업한 장면의 일부인데

00:29:10.281 --> 00:29:12.525
마지막 말에 반응한 말로 적절하지 않은 건데.

00:29:12.625 --> 00:29:15.855
음운 변동은 달라지는 현상입니다.

00:29:15.955 --> 00:29:19.099
크게 대치?

00:29:19.199 --> 00:29:21.936
대치라는 말 안 쓰고 교체라는 말이 최근에 쓰이는데요.

00:29:22.036 --> 00:29:24.570
대치, 첨가, 탈락, 축약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.

00:29:24.670 --> 00:29:28.086

대치는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, 교체라고 하죠.

00:29:28.186 --> 00:29:31.464

첨가는 새로 생기는 거고, 탈락은 없어지는 것, 축약은 합쳐지는 겁니다.

00:29:31.564 --> 00:29:33.787

참고로 음운 변동의 결과는, 보세요.

00:29:33.887 --> 00:29:38.169

표기에 반영되기도 하고, 그렇지 않기도 하는데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.

00:29:38.269 --> 00:29:43.466

㉠~㉡의 사례를 통해서 음운 변동을 이해해 볼까요라고 얘기했죠.

00:29:43.566 --> 00:29:45.029

적절하지 않은 거 골라라.

00:29:45.129 --> 00:29:46.115

밤물입니다.

00:29:46.215 --> 00:29:47.526

발음이 어떻게 돼요?

00:29:47.626 --> 00:29:48.640

밤물로 발음이 되죠.

00:29:48.740 --> 00:29:49.909

이거는 뭐죠, 여러분?

00:29:50.009 --> 00:29:52.797

밤물이라고 하면 비음화가 나타났습니다.

00:29:52.897 --> 00:29:54.100

교체가 된 거죠.

00:29:54.200 --> 00:30:00.105

ㅂ이 ㅁ으로 바뀌어 대치에 해당하며 표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.

00:30:00.205 --> 00:30:03.523

표기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렇게 밤물이라고

00:30:03.623 --> 00:30:07.665

표기하는 게 아니라 밤물이라고 그냥 표기하는 거죠.

00:30:07.765 --> 00:30:11.205

그걸 바로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.

00:30:11.305 --> 00:30:14.362

그다음에 2번 보면 냇가입니다.

00:30:14.462 --> 00:30:17.328

넷가로 쓰므로, ㅅ이
첨가가 되거든요.

00:30:17.428 --> 00:30:19.889

넷가로 쓰므로 표기에도
반영되는 경우인데,

00:30:19.989 --> 00:30:23.687

ㅅ의 대표음 ㄷ이 새로
생긴 첨가에 해당합니다.

00:30:23.787 --> 00:30:27.124

이거는 넷가 같은 경우는
사잇소리 현상이라고 해서요.

00:30:27.224 --> 00:30:28.824

첨가라고 할 수 있죠.

00:30:28.924 --> 00:30:32.860

그다음에 등용문 볼까요?

00:30:32.960 --> 00:30:37.877

3번 선택지를 보면 3번
선택지는 등농문으로 발음되어

00:30:37.977 --> 00:30:39.465

ㄷ이 새로 생긴 첨가에 해당한다.

00:30:39.565 --> 00:30:40.837

정답은 3번이 정답입니다.

00:30:40.937 --> 00:30:45.694

등용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발음되냐면
등농문이 올바른 발음입니다.

00:30:45.794 --> 00:30:47.819

그러니까 ㄷ 첨가가
일어나지 않아요.

00:30:47.919 --> 00:30:50.005

등농문 발음이 어색하죠?

00:30:50.105 --> 00:30:51.614

오히려 어색합니다.

00:30:51.714 --> 00:30:53.289

등용문이 그냥 맞습니다.

00:30:53.389 --> 00:30:54.443

3번이 정답입니다.

00:30:54.543 --> 00:30:56.100

선생님, 이런 건
어떻게 해야 되나요?

00:30:56.200 --> 00:30:58.197

죄송합니다만 암기가 좀 필요합니다.

00:30:58.297 --> 00:31:00.177

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.

00:31:00.277 --> 00:31:05.957

이거로 할까요, 이게 더
헛갈릴 것 같으니까.

00:31:06.057 --> 00:31:10.015

인사말이라고 쓸까요 아니면
인삿말이라고 써야 될까요?

00:31:10.115 --> 00:31:12.720

발음에 따라 달라지는 걸
확인하셔야 됩니다.

00:31:12.820 --> 00:31:16.929

인삿말, 예를 들어서 이게
발음이 여기가 보일까요?

00:31:17.029 --> 00:31:17.866

보이겠네.

00:31:17.966 --> 00:31:22.073

인삿말이라고 해서 만약에 ㄴ이
첨가된 발음으로 발음하잖아요.

00:31:22.173 --> 00:31:25.412

그러면 인삿말 ㅅ으로
쓰는 게 맞아요.

00:31:25.512 --> 00:31:28.883

그런데 인삿말이 아니라 인사말
그냥 이렇게 썼잖아요.

00:31:28.983 --> 00:31:31.692

그러면 인사말 이렇게
쓰는 게 맞아요.

00:31:31.792 --> 00:31:32.625

ㅅ이 안 들어가는 거야.

00:31:32.725 --> 00:31:34.928

정답은 왼쪽입니다, 인사말입니다.

00:31:35.028 --> 00:31:36.284

인삿말이 아닙니다.

00:31:36.384 --> 00:31:38.241

우리가 발음이 좀 헛갈리겠죠?

00:31:38.341 --> 00:31:42.766

그다음에 ㄹ은 보니까
크+어서가 커서로 쓰므로

00:31:42.866 --> 00:31:45.891

표기에도 반영되는 경우인데,
으가 없어졌어요.

00:31:45.991 --> 00:31:47.878

탈락이죠, 으 탈락에 해당합니다.

00:31:47.978 --> 00:31:52.515

보이+어가 보여로 쓰므로
표기에도 반영되는 경우인데,

00:31:52.615 --> 00:31:55.461
이와 어가 합쳐 여가 됐습니다.

00:31:55.561 --> 00:31:57.629
축약에 해당하는 거죠.

00:31:57.729 --> 00:32:00.337
특히 모음 축약이라고 합니다.

00:32:00.437 --> 00:32:03.199
다음은 중세 국어에 대한
수업 장면의 일부이다.

00:32:03.299 --> 00:32:05.752
마지막 말에 반응한 내용으로
적절하지 않은 것을

00:32:05.852 --> 00:32:07.771
찾아보라고 얘기했는데.

00:32:07.871 --> 00:32:09.833
엄청나게 기네요.

00:32:09.933 --> 00:32:10.929
볼게요.

00:32:11.029 --> 00:32:13.631
훈민정음을 통해 중세 국어는 음운,
문법, 어휘, 표기의 측면에서

00:32:13.731 --> 00:32:15.782
오늘날의 국어와 차이가
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00:32:15.882 --> 00:32:20.436
먼저 음운의 경우는 오늘날
소멸된 음운이 사용되는가 하면

00:32:20.536 --> 00:32:24.897
순경음 ㅂ, 그다음에 아래아 점 하나
있는 거, 받침음 이런 것들이죠.

00:32:24.997 --> 00:32:28.542
음절의 높낮이를 통해서 단어의
뜻을 분별하는 성조가

00:32:28.642 --> 00:32:30.497
있었다는 특징을 찾을 수 있죠.

00:32:30.597 --> 00:32:31.762
성조가 있었습니다.

00:32:31.862 --> 00:32:34.479
방점, 점을 찍는 방점을
통해서 알 수 있죠.

00:32:34.579 --> 00:32:37.645
문법 면에서도 주격 조사나 명사형

어미의 쓰임이 오늘날과 차이가.

00:32:37.745 --> 00:32:40.467

주격 조사는 옛날에 이,
동그라미 있는 이.

00:32:40.567 --> 00:32:46.391

또는 그냥 이 또는 제로 주격이라고
해서 이렇게 세 개밖에 없었는데

00:32:46.491 --> 00:32:48.516

오늘날에는 가가 쓰이죠.

00:32:48.616 --> 00:32:50.588

그러니까 옛날에는 가라는
주격 조사가 없었거든요.

00:32:50.688 --> 00:32:55.150

명사형 어미도 옛날에는 뭐였냐면
음이나 음 같은 경우는

00:32:55.250 --> 00:32:57.005

명사형 어미였습니다.

00:32:57.105 --> 00:33:01.671

그런데 오늘날은 음하고
기 이런 거밖에 없죠.

00:33:01.771 --> 00:33:05.388

표기 또한 이어 적거나 한자의
원음에 가깝게 표기하는 방식이다.

00:33:05.488 --> 00:33:09.791

한자의 원음에 가깝게 표기하는
것을 동국정운식 한자어입니다,

00:33:09.891 --> 00:33:11.619

이렇게 얘기합니다.

00:33:11.719 --> 00:33:14.462

끝으로 어휘 면에서도 뜻이 달리
쓰이는 경우를 찾을 수 있습니다.

00:33:14.562 --> 00:33:18.355

이러한 특징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
찾아 볼까요라고 얘기했습니다.

00:33:18.455 --> 00:33:24.427

1번, 수비나 땡가노니에서는 오늘날
쓰이지 않는 음운이 사용되었다.

00:33:24.527 --> 00:33:25.228

확인하죠.

00:33:25.328 --> 00:33:26.172

뭐가 있어요?

00:33:26.272 --> 00:33:27.857

순경음 비 안 쓰였잖아요.

00:33:27.957 --> 00:33:31.463

평가노니 할 때 아래아 이런
것들 오늘날 안 쓰이잖아요.

00:33:31.563 --> 00:33:34.376
그러니까 1번 선택지 맞죠.

00:33:34.476 --> 00:33:39.113
백성이 흘배를 보면 주격 조사와
| 와 함께 이가 사용되었다.

00:33:39.213 --> 00:33:40.126
좀 어렵습니다.

00:33:40.226 --> 00:33:41.834
백성이 할 때 동그라미 이고요.

00:33:41.934 --> 00:33:45.118
여기에서 이 배라고 하는 건
애들아, 해석을 어떻게 하나면

00:33:45.218 --> 00:33:46.565
이렇게 하셔야 돼요.

00:33:46.665 --> 00:33:51.166
뭐냐면, 흘배가 어디 나왔니?

00:33:53.624 --> 00:33:57.757
여기 있다, 니르고저 흘배이셔도
할 때 흘배라고 하는 게

00:33:57.857 --> 00:34:00.027
뒤에 해석이 어떻게
되는지 보셔야 돼요.

00:34:00.127 --> 00:34:03.107
어디 나왔냐면 하는 바가,
배가 이거잖아요.

00:34:03.207 --> 00:34:06.001
바가 있어도 이렇게 씁니다.

00:34:06.101 --> 00:34:08.928
배라고 하는 게 바가 이런 거예요.

00:34:09.028 --> 00:34:12.920
즉, 다시 말하면 배라고 하는
것은 바+이가 합쳐진 거예요.

00:34:13.020 --> 00:34:14.583
그래서 배가 된 거거든요.

00:34:14.683 --> 00:34:17.466
여기에서 이가 어떻게 해석됐냐면
여기 가로 해석됐죠.

00:34:17.566 --> 00:34:22.107
주격 조사가 옛날과 오늘날이 달라졌다는
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.

00:34:22.207 --> 00:34:27.032
쭈메를 보면 오늘날에는 음인

명사형 어미가 옴으로 나타난다.

00:34:27.132 --> 00:34:28.116
어렵습니다.

00:34:28.216 --> 00:34:31.326
쭈메 같은 경우는 이게
기본형이 어떻게 되냐면요.

00:34:31.426 --> 00:34:32.820
쓰다예요, 쓰+.

00:34:32.920 --> 00:34:35.345
이게 음성 모음이거든요.

00:34:35.445 --> 00:34:38.460
그러니까 옴이나 옴
중에 옴이 들어갑니다.

00:34:38.560 --> 00:34:40.267
그다음에 +에가 되죠.

00:34:40.367 --> 00:34:45.553
그다음에 으가 탈락되고 비
스 쑤+에가 되고요.

00:34:45.653 --> 00:34:48.580
그다음에 연음 현상이
나니까 이어 적기니까

00:34:48.680 --> 00:34:50.878
쭈메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죠.

00:34:50.978 --> 00:34:53.237
그러니까 여기에서
쭈메라는 단어를 통해서

00:34:53.337 --> 00:34:57.475
명사형 어미 옴이 들어가
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.

00:34:57.575 --> 00:35:00.515
어린이나 퍼디가 쓰인 문맥을
고려하면 중세 국어에서는

00:35:00.615 --> 00:35:02.457
형태상 동일한 단어가 오늘날
다른 뜻으로 쓰였다.

00:35:02.557 --> 00:35:03.686
어린이 무슨 뜻이에요?

00:35:03.786 --> 00:35:07.021
어리석은 이런 뜻이고,
시러 퍼디라고 했는데.

00:35:07.121 --> 00:35:10.135
쉽게 퍼지, 어디니?

00:35:10.235 --> 00:35:12.432
퍼디라는 단어 볼까요?

00:35:12.532 --> 00:35:16.574

뜻을 시리 펴디라고 했는데
여기에서는 능히 펴지.

00:35:16.674 --> 00:35:19.735

정답은 4번이 정답이네요.

00:35:19.835 --> 00:35:23.070

어린이라고 하는 것은
어리석은이라는 뜻인데,

00:35:23.170 --> 00:35:25.391

여러분 이걸 보시면
되겠다, 그렇죠?

00:35:25.491 --> 00:35:30.633

중세 국어 문법은요.

00:35:30.733 --> 00:35:34.573

현대어 문체랑 똑같아요.

00:35:34.673 --> 00:35:37.846

현대어랑 틀린 그림 찾기
뭐 이런 거랑 똑같거든.

00:35:37.946 --> 00:35:41.000

어린이 어리석은이니까 뜻이
달라진 거 맞잖아요.

00:35:41.100 --> 00:35:45.691

그런데 능히 펴지 할 때 펴지가
오늘날 펴지하고 단어가 똑같잖아요.

00:35:45.791 --> 00:35:47.102

그러니까 정답 4번이네요.

00:35:47.202 --> 00:35:51.039

펴지가 오늘날 펴지하고
단어 뜻이 똑같으니까요.

00:35:51.139 --> 00:35:55.070

5번 보면 말쌈미, 뜨들, 따라미니라
등에서 앞 음절의 끝소리가

00:35:55.170 --> 00:35:58.056

뒤 음절의 첫소리로 이어 적는
방식이 사용됨을 알 수 있다.

00:35:58.156 --> 00:36:05.329

말쌈+이, 뜻+을,
따름, 따람+이니라인데

00:36:05.429 --> 00:36:08.500

이어 적기가 됐다는
걸 알 수 있죠.

00:36:08.600 --> 00:36:13.687

펴디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는 원래
뜻과 오늘날의 뜻이 똑같습니다.

00:36:13.787 --> 00:36:16.217

그래서 정답이 4번이
정답이 되겠네요.

00:36:16.317 --> 00:36:18.617

마지막 세트 문제
한번 가보겠습니다.

00:36:18.717 --> 00:36:22.687

보기 1의 표준 발음법을 바탕으로
보기 2의 발음에 대해서 설명하였다.

00:36:22.787 --> 00:36:24.158

적절하지 않은 것은?

00:36:24.258 --> 00:36:26.956

이런 발음법이, 이거는 어떻게
다 외우는 것이 아니라

00:36:27.056 --> 00:36:32.108

밑에 나와 있는 사례를 위로 연결해서
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.

00:36:32.208 --> 00:36:34.387

어떻게 보시냐면 여러분, 볼게요.

00:36:34.487 --> 00:36:40.543

1번, ㉠은 르비이
어디 나와 있어요?

00:36:40.643 --> 00:36:42.682

르비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.

00:36:42.782 --> 00:36:46.919

그러니까 이 예문을
확인하라는 얘기야.

00:36:47.019 --> 00:36:49.489

ㄴ 앞에 위치하고
있으므로, 볼게요.

00:36:49.589 --> 00:36:51.950

보면 밝는이잖아요.

00:36:52.050 --> 00:36:54.780

르비이 ㄴ 앞에
위치하고 있죠.

00:36:54.880 --> 00:37:00.304

그러니까 르비는 ㄴ, ㄹ
앞에서, 여기 예문하고 똑같네요.

00:37:00.404 --> 00:37:01.610

뭐로 바뀌어요?

00:37:01.710 --> 00:37:02.793

ㄹ으로 바뀌잖아요, 그렇죠?

00:37:02.893 --> 00:37:07.358

이게 밝는이 결국은
밝는으로 발음되는 거니까

00:37:07.458 --> 00:37:09.876
여기의 예문으로 적절한 거죠.

00:37:09.976 --> 00:37:14.924
그러니까 1번 르비
ㄴ 앞에 위치하고 있으므로

00:37:15.024 --> 00:37:17.117
밤느으로 발음한다,
그대로 쓰인 거죠.

00:37:17.217 --> 00:37:19.285
그다음에 볼까요?

00:37:19.385 --> 00:37:25.620
값 매김이라고 했는데, 한마디로
발음할 때 값 매김이라고 하면

00:37:25.720 --> 00:37:26.449
여기 보세요.

00:37:26.549 --> 00:37:29.135
두 단어를 이어서
한마디로 발음하는 경우에

00:37:29.235 --> 00:37:32.771
값 매김이라고 하면 비스이
어디 나왔습니까?

00:37:32.871 --> 00:37:37.823
여기 비스도 역시 마찬가지로
ㄴ, ㅁ 앞에서

00:37:37.923 --> 00:37:40.039
어떻게 발음되는지 확인하면 되겠죠.

00:37:40.139 --> 00:37:44.752
여러분, 이거 첫 번째
문제 같은 경우는 밝는을

00:37:44.852 --> 00:37:49.393
어떻게 선생님이 좀 구체적으로
써야 될 것 같아요.

00:37:49.493 --> 00:37:53.986
밝는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
어떻게 발음되냐면

00:37:54.086 --> 00:37:58.369
ㄴㅁ 앞에 위치하고 있으므로
밤느으로 발음한다고 했는데

00:37:58.469 --> 00:38:02.297
여기에서는 먼저 이런 현상이 먼저
나타난다는 걸 설명해야 될 것 같아.

00:38:02.397 --> 00:38:03.628
르이 탈락됩니다.

00:38:03.728 --> 00:38:05.757

밥하고 는이 되는 거예요.

00:38:05.857 --> 00:38:09.487

그래서 이 밥이라고 하는
ㅂ이 어떻게 발음되냐면

00:38:09.587 --> 00:38:13.874

뒤에 는이라고 하는 ㄴ과 만나서
비음화가 다시 나타나는 거죠.

00:38:13.974 --> 00:38:15.155

그 뜻입니다.

00:38:15.255 --> 00:38:16.581

그래서 ㅁ으로 발음되는 거고.

00:38:16.681 --> 00:38:18.194

값 매김도 마찬가지로입니다.

00:38:18.294 --> 00:38:20.367

값 매김도 여기 ㅂ이잖아요.

00:38:20.467 --> 00:38:23.115

ㄴ, ㅁ 앞에서
ㅁ으로 발음한다.

00:38:23.215 --> 00:38:25.580

2번 선택지까지 적절하겠죠.

00:38:25.680 --> 00:38:26.689

강릉입니다.

00:38:26.789 --> 00:38:29.269

ㅇ 뒤에 ㄴ이
연결되고 있으므로.

00:38:29.369 --> 00:38:32.124

그러면 이거는 뒤에
예문에 해당하겠죠.

00:38:32.224 --> 00:38:34.662

ㅁ, ㅇ 뒤에
연결되는 ㄴ, 왜?

00:38:34.762 --> 00:38:39.019

강릉이라고 하면 ㅁ, ㅇ
뒤에, 여기 ㅇ이잖아요.

00:38:39.119 --> 00:38:43.001

ㅇ 뒤에 연결되는 ㄴ
때문에 ㄴ으로 발음한다.

00:38:43.101 --> 00:38:48.115

ㄴ은 ㄴ으로 강능으로 발음하는
거니까 3번 선택지도 적절하죠.

00:38:48.215 --> 00:38:50.558

ㄹ은 뭐죠?

00:38:50.658 --> 00:38:51.706

대관령입니다.

00:38:51.806 --> 00:38:53.976
ㄴ 뒤에 ㄹ이 위치하고 있으므로

00:38:54.076 --> 00:38:56.632
대관녕이 아니고 뭐라고 발음합니까?

00:38:56.732 --> 00:38:58.034
여기 나오죠.

00:38:58.134 --> 00:39:00.043
ㄹ의 앞이나 뒤에서
ㄹ로 발음한다.

00:39:00.143 --> 00:39:01.130
어떻게 돼요?

00:39:01.230 --> 00:39:06.626
대관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
ㄴ은 ㄹ 앞이나 뒤에서,

00:39:06.726 --> 00:39:07.657
앞에 있잖아요.

00:39:07.757 --> 00:39:08.848
그러니까 어떻게 발음해?

00:39:08.948 --> 00:39:11.871
대관령 이렇게 발음을 하겠죠.

00:39:11.971 --> 00:39:14.785
정답은 4번이 정답입니다.

00:39:14.885 --> 00:39:19.567
ㄹ은 ㄴ이, 뚫는 같은 경우는
ㄹㅎ 뒤에 연결되어 있으므로

00:39:19.667 --> 00:39:20.972
ㄹㅎ이니까 어디 있죠?

00:39:21.072 --> 00:39:22.378
여기죠.

00:39:22.478 --> 00:39:25.119
ㄹㅎ 뒤에 연결되는
경우에도 이에 준한다.

00:39:25.219 --> 00:39:26.961
똑같으니까 ㄹ로 발음한다.

00:39:27.061 --> 00:39:31.695
뚫는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애들아,
여기에서 뚫는 것은 경우는.

00:39:31.795 --> 00:39:33.339
보세요.

00:39:33.439 --> 00:39:36.467
ㄹㅎ 뚫는 어떻게 돼요, 먼저?

00:39:36.567 --> 00:39:38.302

뜯는 이렇게 되고요.

00:39:38.402 --> 00:39:40.096

르과 니 만나서 또 되죠.

00:39:40.196 --> 00:39:42.713

그래서 뜯른이 됩니다.

00:39:42.813 --> 00:39:45.956

제가 만약에 문제 내면 뜯는
정도로 이렇게 문제를 내서

00:39:46.056 --> 00:39:47.184

이걸 틀린다고 할 것 같아요.

00:39:47.284 --> 00:39:49.092

대관령은 너무 쉽잖아요, 그렇죠?

00:39:49.192 --> 00:39:53.328

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.

00:39:53.428 --> 00:39:55.434

2번 문제 볼까요?

00:39:55.534 --> 00:39:58.555

보기 1을 참고해서 보기
2의 ㉠~㉢을 이해하라.

00:39:58.655 --> 00:39:59.826

중의적 표현 또 나왔네요.

00:39:59.926 --> 00:40:02.446

문장 구조의 중의적 표현은
달리 해석되는 경우가 있다.

00:40:02.546 --> 00:40:07.284

1번 보면 그것은 그의
손에 떨어졌다라고 했는데

00:40:07.384 --> 00:40:08.978

1번 선택지 볼까요?

00:40:09.078 --> 00:40:13.035

손이라는 단어의 중의성에 의해서
의미가 다르게 해석됩니다.

00:40:13.135 --> 00:40:15.919

즉, 다시 말하면 그의 손에
떨어졌다 하면 신체 일부분 손에

00:40:16.019 --> 00:40:17.783

진짜 떨어졌다는 것일 수도 있고.

00:40:17.883 --> 00:40:22.586

그의 손아귀, 그의 영향력 안에
떨어졌다 이런 의미도 되는 거니까

00:40:22.686 --> 00:40:24.189

㉠은 적절하겠죠.

00:40:24.289 --> 00:40:25.535

㉠을 볼까요?

00:40:25.635 --> 00:40:28.899

상황 맥락에 따라서 원숭이들이
옷을 입고 있다고 하면

00:40:28.999 --> 00:40:34.062

상황 맥락에 따라 옷을 벗고 있다가
입고 있는 상황을 의미하기도 하고,

00:40:34.162 --> 00:40:37.357

옷을 입고 있는 상태
자체가 얘기하기도 하죠.

00:40:37.457 --> 00:40:41.401

옷을 입고 있다고 하면 옷을 막
입고 있는 그 동작을 얘기하는 거고

00:40:41.501 --> 00:40:43.496

또는 입고 있는 그
상태를 입고 있다

00:40:43.596 --> 00:40:45.184

이렇게 얘기할 수도
있는 거니까 맞아요.

00:40:45.284 --> 00:40:48.194

옛날에 모의고사 나왔었습니다.

00:40:48.294 --> 00:40:51.565

㉠은 두 송이가 한정하는 대상이
무엇이냐에 따라 다양하게

00:40:51.665 --> 00:40:53.791

해석되는 문장으로,
상황 맥락에 의해서

00:40:53.891 --> 00:40:57.438

중의성이 해석되는
경우라고 되어 있는데.

00:40:57.538 --> 00:41:00.435

이건 보면 문제가
보면, 여기 보세요.

00:41:00.535 --> 00:41:06.031

중의성은 단어의 중의성이나 문장의
구조에 의한 중의성으로 발생하고,

00:41:06.131 --> 00:41:08.451

부정 표현으로 인해
중의성이 발생하고,

00:41:08.551 --> 00:41:11.219

상황 맥락에 따라
해석되는 경우인데.

00:41:11.319 --> 00:41:13.399

그거 하나하나 확인하라는
얘기입니다.

00:41:13.499 --> 00:41:15.203

하나하나 연결하라는
얘기네요, 문제가.

00:41:15.303 --> 00:41:19.590

3번을 보면 두 송이가 한정하는
내용이 무엇이나에 따라서

00:41:19.690 --> 00:41:24.966

백합과 장미 두 송이라고
하면 백합, 장미 해서

00:41:25.066 --> 00:41:29.271

이게 각각 합쳐서 두 송이인지 아니면
백합 하나와 장미 두 송이인지

00:41:29.371 --> 00:41:33.663

이런 범위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
이거는 상황 맥락에 따라

00:41:33.763 --> 00:41:38.587

달리 해석되는 게 아니라 문장
구조에 의한 중의성이니까

00:41:38.687 --> 00:41:39.771

정답 3번이에요.

00:41:39.871 --> 00:41:42.486

별로 좋은 문제는 아닌
것 같아, 그렇지?

00:41:42.586 --> 00:41:46.691

아주 함정을 어렵게 만들려고
작성하고 문제를 내신 것 같은데요.

00:41:46.791 --> 00:41:49.195

상황 맥락에 따라 중의성이
나타나는 것이 아니라

00:41:49.295 --> 00:41:51.494

문장 구조에 의한 중의성입니다.

00:41:51.594 --> 00:41:53.087

좀 어려웠을 것 같네요, 그렇죠?

00:41:53.187 --> 00:41:57.562

그다음에 ㉠을 보시면
아름다운 그녀의 드레스가,

00:41:57.662 --> 00:41:59.199

이것도 역시 문장 구조죠.

00:41:59.299 --> 00:42:00.779

문장 구조입니다.

00:42:00.879 --> 00:42:03.585

관형어인 아름다운이 수식하는 대상이
그녀인지 드레스인지에 따라.

00:42:03.685 --> 00:42:06.612

않았다는 부정어를 통해서

부정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따라

00:42:06.712 --> 00:42:08.206
여러가지로 해석된다.

00:42:08.306 --> 00:42:12.129
만나지 않았다고 하면
그는 만나지 않았단인지

00:42:12.229 --> 00:42:15.636
10시가 아닌지 그녀와 만나지 않은
건지 역전에서 만나지 않은 건지

00:42:15.736 --> 00:42:18.084
여러 의미가 다 해석되는 겁니다.

00:42:18.184 --> 00:42:19.619
3번 볼까요?

00:42:19.719 --> 00:42:22.119
보기는 되다를 사전에
검색한 결과의 일부이다.

00:42:22.219 --> 00:42:24.215
㉠~㉡의 뜻으로 문장을 만들 때

00:42:24.315 --> 00:42:28.180
적절하지 않은 것을
찾으라고 얘기했습니다.

00:42:28.280 --> 00:42:29.947
1번을 보실까요?

00:42:30.047 --> 00:42:34.619
1번을 보면, ㉠을 보면 새로운
신분이나 지위를 가진대요.

00:42:34.719 --> 00:42:36.493
선생님은 내가 배우가 되면,

00:42:36.593 --> 00:42:39.584
배우라고 하는 게 새로운 신분이나
지위가 될 수 있는 거죠.

00:42:39.684 --> 00:42:40.841
그거예요.

00:42:40.941 --> 00:42:42.062
그렇게 찾는 겁니다.

00:42:42.162 --> 00:42:43.156
㉡을 볼까요?

00:42:43.256 --> 00:42:47.958
김 영감은 나뭇가지의 끝부분을
새끼로 되게 묶었다라고 하면

00:42:48.058 --> 00:42:52.017
다른 것으로 바뀌거나 변하게
묶었다는 게 아니고요.

00:42:52.117 --> 00:42:58.232

되게는 무슨 뜻이냐면
여기에서는 끝부분을 새끼로

00:42:58.332 --> 00:43:01.963

되게 묶었다고 하면 여기에서는
되게가 어디에 해당하는 거냐면

00:43:02.063 --> 00:43:04.381

되다 4의 이거.

00:43:04.481 --> 00:43:05.692

여기에서 보자.

00:43:05.792 --> 00:43:09.840

되다 4의 2번 보면 줄 따위가 단단하고
팽팽하게 묶었다 이런 뜻이에요.

00:43:09.940 --> 00:43:11.191

2번 선택지가.

00:43:11.291 --> 00:43:13.075

그래서 정답이 2번이 정답입니다.

00:43:13.175 --> 00:43:14.367

이해되셨습니까?

00:43:14.467 --> 00:43:16.145

새끼를 되게 묶었다.

00:43:16.245 --> 00:43:18.164

우리 되게 세다 뭐 이런
거 할 때 쓰잖아.

00:43:18.264 --> 00:43:19.973

그 되게에 해당하는 말이거든요.

00:43:20.073 --> 00:43:23.519

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바뀌거나
변하게 된 게 아니죠.

00:43:23.619 --> 00:43:27.163

새끼줄이 다른 거로 바뀌거나
이런 거 아니잖아요.

00:43:27.263 --> 00:43:28.876

그러니까 정답 2번.

00:43:28.976 --> 00:43:32.453

3번은 창호지를 새로 바르기
위해 풀을 되게 쭈었다.

00:43:32.553 --> 00:43:36.093

빡빡하게, 물기가 적게, 맞죠.

00:43:36.193 --> 00:43:37.190

됐어요?

00:43:37.290 --> 00:43:39.107

2번 선택지는 나무
끝부분을 새끼로.

00:43:39.207 --> 00:43:41.257

이게 팽팽하다, 단단하다
여기의 뜻입니다.

00:43:41.357 --> 00:43:42.329

그래서 틀렸죠.

00:43:42.429 --> 00:43:45.585

하루 종일 된 노동을, 이걸
고되다 이런 뜻이잖아요.

00:43:45.685 --> 00:43:49.198

그러니까 ㉠ 힘에 벽차다
이런 뜻이겠고.

00:43:49.298 --> 00:43:53.668

그가 발의한 안건이 국회에서
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라고 하면

00:43:53.768 --> 00:43:55.898

여기에서 되다라고 하는 것은
피동의 뜻을 더하는 거죠.

00:43:55.998 --> 00:43:59.951

가결되었다라고 하니깐 가결이라고
하는 어근에 되다라고 하는

00:44:00.051 --> 00:44:04.322

접사가 들어가서 피동의
뜻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.

00:44:04.422 --> 00:44:05.492

됐어요?

00:44:05.592 --> 00:44:06.705

넘어갑니다.

00:44:06.805 --> 00:44:07.885

4번 문제 보겠습니다.

00:44:07.985 --> 00:44:12.751

4번 문제 보시면 보기를 바탕으로
어근과 접사의 특징을 설명하였다.

00:44:12.851 --> 00:44:15.141

적절하지 않은 것을
찾으라고 했는데.

00:44:15.241 --> 00:44:18.339

파생어는 어근과 접사가
결합된 낱말입니다.

00:44:18.439 --> 00:44:21.254

접사는 위치에 따라 어근의 앞에 붙는
접두사, 뒤에 붙는 접미사인데요.

00:44:21.354 --> 00:44:26.535

접두사는 개살구 할 때 개, 헛,
헛디디다, 덧신, 덧대다, 메마르다

00:44:26.635 --> 00:44:27.890
이런 것들이 되고.

00:44:27.990 --> 00:44:30.714
접미사는 개, 덮개,
하다도 되고요.

00:44:30.814 --> 00:44:35.722
하다, 얼음, 음, 향기롭
이런 것들 있죠?

00:44:35.822 --> 00:44:39.193
이, 히 이런 것들이 바로
접미사에 해당하는 겁니다.

00:44:39.293 --> 00:44:41.505
적절하지 않은 것, 1번 볼까요?

00:44:41.605 --> 00:44:44.963
접사는 사동이나 피동의
뜻을 더하는 기능을 한다.

00:44:45.063 --> 00:44:46.386
이런 거 어떻게 하니?

00:44:46.486 --> 00:44:49.284
사동이나 피동이라고 하면 이게
이거 확인하라는 얘기야.

00:44:49.384 --> 00:44:51.383
먹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동이고요.

00:44:51.483 --> 00:44:53.772
먹히다라고 하는 것은
피동 접미사입니다.

00:44:53.872 --> 00:44:56.397
이, 히, 리, 기, 우,
구, 추라고 들어봤죠?

00:44:56.497 --> 00:45:02.682
2번, 접두사와 접미사 모두 어근의
품사를 바꾸어 주지는 못한다.

00:45:02.782 --> 00:45:03.876
향기라고 하는 게 명사잖아요.

00:45:03.976 --> 00:45:06.753
향기롭다 이게 붙으면
형용사가 되죠.

00:45:06.853 --> 00:45:08.981
그러니까 당연히 품사를 바꾸죠.

00:45:09.081 --> 00:45:12.755
지우개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,
지우다라고 하는 게 동사잖아요.

00:45:12.855 --> 00:45:14.728
개가 붙으면서 명사가 되죠.

00:45:14.828 --> 00:45:16.080

덜개도 마찬가지로입니다.

00:45:16.180 --> 00:45:17.405

사랑이 명사잖아요.

00:45:17.505 --> 00:45:19.902

하다도 마찬가지로 사랑하다가
되면 동사가 되는 거죠.

00:45:20.002 --> 00:45:22.518

접미사는 품사를 바꿀 수 있어요.

00:45:22.618 --> 00:45:25.358

그렇다고 다 바꾸는 건
아니지만 바꿀 수 있어요.

00:45:25.458 --> 00:45:27.060

건강하다 바꿨네요.

00:45:27.160 --> 00:45:28.759

그런데 접두사는 바꿀 수 있어?

00:45:28.859 --> 00:45:30.389

바꿀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.

00:45:30.489 --> 00:45:31.277

여기 나왔어요.

00:45:31.377 --> 00:45:42.622

메마르다 같은 경우는 원래
마르다라고 하는 게 원래 동사인 데

00:45:42.722 --> 00:45:45.696

메마르다라고 하면 형용사로 품사가
바뀌어 버리는 거거든요.

00:45:45.796 --> 00:45:50.364

접두사 중에서 품사로 바꿀 수 있는
게 메마르다 이거 하나 기억하시고.

00:45:50.464 --> 00:45:52.331

그다음에 강마르다 이런 거 있죠?

00:45:52.431 --> 00:45:56.280

강마르다의 좀 작은 말 강마르다
이것도 역시 품사를 바꿀 수 있는

00:45:56.380 --> 00:45:59.367

아주 특이한 접두사다, 이렇게
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.

00:45:59.467 --> 00:46:00.755

5번 보겠습니다.

00:46:00.855 --> 00:46:02.812

(가)와 (나)를 통해 국어의
변화 양상을 이해한 내용으로

00:46:02.912 --> 00:46:05.991

적절하지 않은 것을

고르라고 얘기했는데.

00:46:06.091 --> 00:46:09.020

이게 참, 이게
노걸대언해라고 하는 건데.

00:46:09.120 --> 00:46:11.307

여기 밑에 해석이 다
나와 있어요, 여러분.

00:46:11.407 --> 00:46:13.133

해석이 다 나와 있는 거고요.

00:46:13.233 --> 00:46:16.033

그걸 바탕으로 해서, 이걸 다
해석을 못 해도 상관없고, 왜?

00:46:16.133 --> 00:46:17.655

밑에 해석이 다 나와 있으니까요.

00:46:17.755 --> 00:46:20.994

그걸 바탕으로 해서 밑에
선택지를 판단하면 됩니다.

00:46:21.094 --> 00:46:28.639

(가)와 (나)의 에손대가 오늘날의
에게서로 바뀐 것을 통해서

00:46:28.739 --> 00:46:30.211

조사가 교체되기도 한다.

00:46:30.311 --> 00:46:31.153

보세요.

00:46:31.253 --> 00:46:34.492

여기 보면 뭐라고
되어 있냐면 에손대,

00:46:34.592 --> 00:46:37.027

여기도 에손대 이렇게 나왔잖아요.

00:46:37.127 --> 00:46:44.518

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석되냐면 내
한아인에서, 한아, 중국 사람 여기죠.

00:46:44.618 --> 00:46:46.474

에게서죠, 에게서.

00:46:46.574 --> 00:46:49.108

에손대 사람에손대,
여기에서 에게서잖아요.

00:46:49.208 --> 00:46:52.353

그러니까 문법적인 어떤
조사가 옛날에 에손대였는데

00:46:52.453 --> 00:46:56.405

지금은 에게서니까 교체되었다는
걸 알 수 있다, 적절하죠.

00:46:56.505 --> 00:47:00.479

그다음에 (가)와 (나)의 또가
오늘날의 또로 바뀐 것을 봤을 때

00:47:00.579 --> 00:47:02.897

어두에 올 수 있는 자음의
수가 변화가 있다.

00:47:02.997 --> 00:47:05.640

옛날에 ㅅ, ㅈ 같은 경우는
두 개가 올 수 있는데.

00:47:05.740 --> 00:47:09.393

이제는 또라고 하면 자음이
하나인 겁니다, 여러분.

00:47:09.493 --> 00:47:12.013

그러니까 2번 선택지도 적절하죠.

00:47:12.113 --> 00:47:15.586

(가), (나)의 엷디가 오늘날의
어찌로 바뀌었다는 점에서

00:47:15.686 --> 00:47:17.801

발음의 편의성이 낮아지는 방향으로.

00:47:17.901 --> 00:47:19.128

절대 아닙니다, 여러분.

00:47:19.228 --> 00:47:21.378

엷디가 더 쉬워요,
어찌가 더 쉬워요?

00:47:21.478 --> 00:47:24.437

물론 발음하는 사람에 따라
다르겠지만, 어찌라고 하면

00:47:24.537 --> 00:47:27.551

엷디가 어찌가 됐다는 얘기는
구개음화가 된 거거든요.

00:47:27.651 --> 00:47:30.116

구개음화가 됐다는 얘기는,
문법 현상이 나타났다는 얘기는

00:47:30.216 --> 00:47:34.267

발음을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
그런 음운 변동이 나타나는 거니까

00:47:34.367 --> 00:47:38.218

정답은 뭐냐면 편의성이
낮아지는 방향이 아니라

00:47:38.318 --> 00:47:40.602

발음의 편의성이
높아지는 방향입니다.

00:47:40.702 --> 00:47:42.418

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에요.

00:47:42.518 --> 00:47:46.629

4번, 잘하느냐로 바뀐 것으로 볼 때

종결하는 어미가 일부 교체되었다.

00:47:46.729 --> 00:47:48.925

그러니까 종결 어미인지만
확인하면 되는 거죠.

00:47:49.025 --> 00:47:51.787

잘하느냐가 잘하느냐라고 했을
때 그계를 종결 어미인지만

00:47:51.887 --> 00:47:54.150

확인하시면 됩니다.

00:47:54.250 --> 00:47:57.645

그다음에 한아가 나의
한말로 한말이 현대에서

00:47:57.745 --> 00:48:00.079

그 표기가 중국말로
바뀌었을 때 한글 사용이.

00:48:00.179 --> 00:48:03.982

아까 한자 썼는데 지금 여기에서는
중국어라는 말로 썼으니까

00:48:04.082 --> 00:48:06.499

한글이 더 확인됐다는
걸 확인할 수 있죠.

00:48:06.599 --> 00:48:08.899

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.

00:48:08.999 --> 00:48:11.998

여러분, 여기까지 긴 시간
문법에 대해서 마쳤고요.

00:48:12.098 --> 00:48:15.758

다음 시간에 마지막으로 화법, 작문에
대한 내용들이 진행될 겁니다.

00:48:15.858 --> 00:48:17.285

고생하셨습니다.

00:48:17.385 --> 00:48:19.057

여러분, 다음 시간에
또 뵙겠습니다.

00:48:19.157 --> 00:48:20.464

여러분, 수고하셨습니다.